

제2063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이재용 경영복귀 1년... '뉴 삼성' 길이 보인다 9



정운모 이사장 "벤처 혁신 종합기관으로 변신" 12

〈납품단가 인하 압박〉

현대차 乙의 횡포로 '2차 벤더' 손실만 3兆

공정위 제출 자료 본지 단독입수
'하도급법 위반 신고·손실 현황'

1차 협력사가 2차에 전가 손실규모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과 맞먹어
3차 벤더까지 합하면 4조~5조 추정

현대기아차로부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1차 협력사(벤더)가 2차 협력사에 전가한 손실 규모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기아차가 CR(Cost Reduction)이라고 불리는 납품단가 인하를 1차 벤더에 요구하는데 이 부담이 2차, 3차 벤더로 내려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2일 현대기아차 2차 벤더 한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료'와 9개 2차 벤더가 본지에 제보한 '환산 손실 현황' 등에 따르면, 표본 조사로 통계치를 추정한 결과 현대기아차로부터 요구받은 납품단가 인하분에 대해 1차 벤더가 2차로 떠넘긴 손실 규모만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차 지난해 추정 영업이익(2조5850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통상 2차 벤더들은 1차 벤더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가 인하분을 손실로 간주한다. 2차 벤더들은 납품하는 부품마다 CR 비율(%), 기간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도 손실 규모는 평균적으로 연매출 대비 최소 5%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2차 벤더 수가 2000~3000개인 점, 이들 평균 연 매출액이 최소 20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소 10억 원가량(매출 대비 5%)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3차 벤더 손실까지 합하면 4조~5조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안경무 기자 noglasses@



다보스포럼 개막 클라우드 슈바프(오른쪽 두 번째) 세계경제포럼(WEF) 창시자가 2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행사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국 오케스트라 지휘자 마린 알송, 사우디아라비아 영화 제작자 하이파 알 만수르, 힐데 슈바프, 클라우드 슈바프, 다크멘터리 제작자 데이비드 애튼버러.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한다.
다보스/AFP연합뉴스

작년 2.7% 성장...6년 만에 최저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최저치인 2.7%였다. 정부가 끌고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이 밀었지만 잠재성장세(2.8~2.9%)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결과다. 지난해 건설투자(-4.0%)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설비투자(-1.7%)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였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GDP는 전기 대비 1.0% 증가

해 3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1% 성장해 2017년 3분기(3.8%) 이후 가장 높았다.

한편 한은은 이날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코픽스 주담대 금리 7월부터 0.27%p 인하

7월부터 변동금리 상품의 63%를 차지하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진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

서 조달하는 정기예·적금, 주택부금, 금융채 등 8개 수신상품 평균 비용을 취합해 산출된다.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 코픽스 금리 산정 기준에 요구부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새롭게 포

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2010년 코픽스 도입 이후 결제성 자금(요구부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코픽스 산정 시 제외했다. 단기자금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 시 금리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8면에 계속
김보름 기자 fullmoon@

'고의분식' 삼바 제재 효력 중지

행정법원 "부패기업 낙인 우려"
증권위 "즉시항고 등 대응 검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재무제표 재작성 등 처분의 효력이 중지됐다. 삼성바이오와 증권위 측의 표정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적법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증권위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삼성바이오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증권위의 처분에 의해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의 회계 정보가 수정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 고객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어한 금액을 회수해 거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며 "민약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해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법원의 가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 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삼성바이오가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우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증권위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솔 기자 charmy@
유혜은 기자 euna@·이주혜 기자 winjh@



"여기는 마음을 선물하는 곳, 정관장입니다"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정관장에 담아 선물하세요



설에도 마음을 주세요

행사기간 : 01.11~02.06

- 1 선물용 제품 10% 할인 (이부영목에 한함)
- 2 100만원 이상 구매시 포인트 추가 적립 (금액구간별 적립률 상이)
- 3 신규 멤버십 가입 후 첫 구매시 알파프로젝트 '정관장' 증정
- 4 홍삼정에브리타임 30/50포 구매시 3포 추가증정 (왕인단천 20환 구매시 1환 추가증정)
- 5 KB/롯데 카드 할인행사 15/30/45/60/75/90만원 이상 결제 시 1/2/3/4/5/6만원 청구환 (단, 법인카드/체크카드 제외, 연 1회 한함)

*적용 대상: 가맹점, 직영점

당신께만큼 정관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 살포’ 재판 앞둔 박차훈... 연봉 7억 ‘셀프 인상’



박차훈(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올해 연봉수령액을 대폭 인상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회장은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앞둔 상태다. 앞서 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삭감된 바 있다. 중앙회 임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사회는 박 회장이 소집한다. 사실상 ‘셀프 연봉인상’을 한 셈이다. ▶관련기사 8면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올해 ‘임원 보수’ 총한도를 40억4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5억 원 수준에서 60% 넘게 인상한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중앙회장의 연봉으로 책정된다.

나머지는 중앙회 임원 및 자회사 대표, 올해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 의원에 돌아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해 4억2000만 원 수준이었던

임원 보수 총한도 40억 확정
작년 25억에서 60% 이상 인상
회장 연봉은 기존보다 3억 올라

대의원 총회, 이사회 거수기 불과
올해 예산안 승인 무리 없을 듯

박 회장의 연봉은 올해 7억2000만 원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회장 및 임원들에게 배정한 연봉은 2월에 예정된 지역 이사장들이 참가하는 대의원 총회가 승인하면 확정된다. 대의원 총회는 이사회 ‘거수기’에 불과해 예산안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새마을금

고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중앙회장인 신종백 씨는 2016년 당시 1억4500만 원의 연봉이 깎였음에도 그해 7억660만 원을 수령했다. 그 전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던 셈이다. 새마을금고 신규 직원의 평균 연봉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당선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전임자의 연봉을 이전받는다. 이러한 탓에 ‘비상근’으로 당선된 박차훈 현 중앙회장도 신 전 회장의 기본급과 성과급(경영활동수당)을 그대로 받았다. 과도한 급여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비상근 회장’에 당선됐지만, 현실은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명분이 없다. 중앙회가

회장의 연봉을 올리더라도 이사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고만 받을 뿐이다. 따라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연봉이 내려가도 회장은 다음 이사회에서 연봉을 인상하면 그만이다. 매년 중앙회장의 연봉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다.

한편 박차훈 회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2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1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회장을 11월에 기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임원 보수 한도는 새로 신설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보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크게 늘었다”며 “회장 연봉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신 기자 jinsan@

손경식 회장 “기업 환경 옥죄는 ‘정부 정책’ 우려스럽다”

경총 신년 기자간담회

“정부가 실제로 어떤 실행 조치를 취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기업이 겪는 고충에 대해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고 있다는 점은 기업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손 회장은 간담회 동안 “우려스럽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최근 기업 환경을 옥죄는 정부 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예의 주시
기업 상속 통한 투자 촉진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 기대”

책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드러냈다.

먼저 그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에 확대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된다”며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일명 김용준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했다. 손 회장은 “경총으로선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산업계에도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위험 작업을 외주를 주지 못하

고 원청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부의 전문기업에 도급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다. 원청자가 도급자가 하는 일에 전부 책임져야 한다

는 부분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기업경영 환경에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원활한 기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했고 올해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초부터 논의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이 합리적인 틀 안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영록 기자 sy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외2, 법 시행령 제5조외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1588-1519

“손실 떠넘기는 먹이사슬… 기술력 없으니 끝지도 못해”

완성차 2차·3차 협력사가 밝히는 '단가인하'의 비밀

1차벤더 '2% 인하 약정'하면, 2차벤더에 "6% 깎아라"
자생력 키울 수 없는 납품방식 등에 사실상 노예계약

#지난해 1차 협력사(벤더)인 S사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A부품에 대해 매출 대비 2%에 달하는 금액만큼 매년(3년간) 단가를 인하(CR)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S사는 곧바로 2차벤더 B사에 같은 기간 매년 6%에 달하는 단가를 인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업계 평균(5%)보다 높은 규모다. 여기에 나머지 부품들과 또 다른 1차벤더에 납품하는 부품까지 모두 합치면 B사의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 규모는 연간 매출액(200억 원)의 7~8%에 달했다.

완성차 업체와 1차 벤더가 맺은 납품 단가 인하 부담이 2·3차 협력업체로 확대·전가되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차 벤더들은 1차 벤더의 단가 인하 강요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도, 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을 승수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배경에는 'CR 약정방식' 외에도 자생력을 키울 수 없는 '납품방식', 현실적으로 벗어나기 힘든 '반영구적 전속거래구조'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대기아차는 공식적으로 1차 벤더하고만 CR 약정을 체결한다. 보통 부품 생산주

기가 3~5년임을 감안해 첫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매년 납품 매출 대비 평균 2%의 인하분을 정한다. 문제는 1차 벤더가 단가인하에 대한 부담을 2차 벤더에 보다 높은 비율(평균 약 5%)로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년간 무려 15%에 달하는 인하분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2차 벤더들은 손실을 견뎌내지 못해 3차 벤더에게로 또 다시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2·3차 벤더들은 "현대기아차가 이 같은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음에도 방조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현대기아차 측은 "2·3차 벤더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지만, 1차 벤더에 제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차 벤더의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 약정 CR 등에 대한 불만을 직접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는 추후 완성차 업체의 인증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불리한 납품 방식도 2·3차 벤더에는 걸림돌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직접 원자재 구매·생산·납품하는 '시제품 납품', 완성차 기업 니즈에 맞춰 생산하는 '승인도', 완성

하향식 CR 약정

- 1 완성차 → 1차 협력사 → 2차 협력사로 단가 할인 부담 전가.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CR 비율 상승
- 2 1차 벤더의 단가 인하 약정비율(매년 2%)이 2차 벤더에 전가되면서 평균 5% 이상 할인된 가격에서 납품

납품방식

- 1 시제품 납품, 승인도 방식, 대여도 방식 3가지로 구분
- 2 국내 하청업체는 완성차가 정해진 원재료를 통해 부품생산하는 대여도 방식, 단순 용역업체로 전락

전속거래구조

- 1 협력업체 자체 기술 확보 실패는 전속거래구조 고착화로 이어져
- 2 자생력 있는 협력업체는 상위업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고사



현대차 2차벤더 업체이정공의 최근 3년간 납품 단가 인하 (단위: 만 원)

연도	전체 납품 단가 (100%)	인가공비	2차 벤더에 유상 지급하는 원재료 비용	매출 대비 인가공비 비중	전체 납품 단가 대비 인하율
2015년	58억7580	18억7170	40억4100	31.9%	6.3%
2016년	52억4564	16억5513	35억9051	31.6%	6.3%
2017년	58억2082	18억9754	39억2328	32.6%	6.1%

* 현대차 2차협력업체인 업체이정공이 1차협력업체인 S사와의 최근 3개년 자동차 부품 A에 대한 매출 및 단가 인하분에 따른 손실 규모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 매출(물품단가) 대비 인하율은 평균 6%였다. 연간 손실규모가 업계 평균(5%)보다 높은 이유는 납품단가 100%에 대한 인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통상 단가는 원재료비(70%)와 인가공비(30%)로 형성되며, 이 중 인가공비에 대해서만 인하율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재료 구입이 불가능한 2차 벤더는 인가공비에서만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다.

차 업체가 원자재 구매, 도면 설계까지 한 후 그대로 만들어달라고 통보하는 '대여도' 등 3가지의 납품방식이 존재한다. 국내 2차 벤더 대부분은 '대여도' 방식을 따른다. 제조업체가 아닌 가공업체인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은 기술력·자생력 확보는 물론 원자재 절감을 통한 수익 발생조차 어렵게 만든다. 반면 글로벌 부품업체들은 '시제품 납품'을 채택해 완성차 업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 2차 벤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해진 단가에서 인하율만 통보 받는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업체 변경 가능성이 커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2·3차 벤더들은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반 영구적인 '전속거래구조'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한다. 완성차 업체는 "전속거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들은 자생력을 상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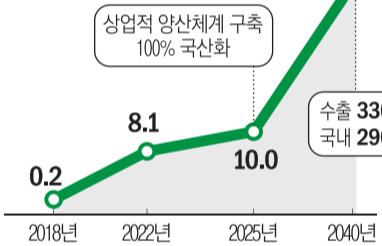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상위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 업체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하청업체의 수익률은 1~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품사의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한 자생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이미 기자 jscs508@안경무 기자 noglasses@

수소자동차 보급 계획

(단위: 만 대, 누적 기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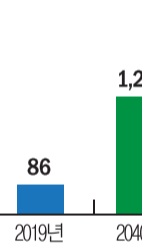
수소버스

(단위: 대)



수소 충전소

(단위: 기)



주유소 한쪽에 수소차 충전소? 30억 든다니 "본전은 언제 뽑아"

정부 전폭적 지원책에 솔깃했다
막대한 투자비·시장성에 뒷걸음

"수소충전시설 1기에 3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선뜻 나설 사업자가 있을까요?" 수소전지차(수소차) 공급 확대를 위해 필수인 수소충전시설 확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막대한 설치비가 들지만 시장성은 떨어지기 때문인데 정부의 톡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유소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차 홍보모델'을 자처하며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00대 수준이던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 620만 대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지대로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14곳에 불과하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규제 개선,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곳, 2040년엔 1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기존 주유소 내 일부 공간에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주유

소들이 차량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휘발유와 경유 판매만으로는 향후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유사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자사의 로고를 붙인(풀주유소) 자영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계열 직영주유소에 설치할 경우 대기업 사업자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주유소 사업자들의 호응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엄청난 투자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진출하기엔 아직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수소충전 시설 1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활발히 운영되는 지방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많아 봐야 하루 20대 정도의 수소차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된다고 해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시장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개인사업자보다는 자본 규모가 큰 대기업이 나서주고, 정부 지원도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투자증권의 1등!

고객이 주셨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입니다

KCS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증권부문

NH투자증권이 2018 KCSI 증권 부문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CS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한 각 산업별 상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한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장번호 제 18-04004 (2018.10.04 ~ 2019.10.01)

CCM NH투자증권

생애주기서 '29~57세' 만 흑자... 43세에 소득 정점

2015년 국민이전계정
16세 年 2459만원 최대 적자
58세 이후부터는 다시 적자로
외국보다 흑자 구간 진입 늦어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 흑자인 연령은 29세부터 57세까지다. 달리 말하면 '쓰는 만큼 버는' 기간이 생애 29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생애

주기 적자·흑자 구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가 차례로 발생했다. 국민이전계정에선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크면 생애주기 적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크면 흑자로 본다.

연령별 생애주기 수치는 0세부터 28세까지는 적자, 29세부터 57세까지는 흑자였다. 57세 이하에서 생애주기 적자는 16세에서 2459만7000원(이하 연간)으로 최대였으며, 흑자는 43세에서 1305만9000원으로 최대였다. 58세부터는 적자로 전환돼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자도 계속 늘어났다.

28세 이하와 58세 이상에서 발생한 적자는 양육·부양비 등 민간이전과 연금·복지 등 공공이전, 조세정책에 따른 공공자산배분, 금융·임대소득과 상속 등 민간자산배분으로 보전됐다.

연령대별로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한 배경은 다르다. 16세 이전엔 지출은 있지만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일 수밖에 없다. 17세부터 의무교육에 따른 공공교육소비가 급감하고 노동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적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단 노동소득 증가가 대학 진학에 따른 민간교육소비 증가와 사회 진출에 따른 민간기타

소비 증가를 못 따라가면서 적자구간은 28세까지 이어졌다.

최바울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20대는 군입대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인구가 많아 노동소득 평균값이 적지만, 대학원 등 고등교육을 받는 인기도 많아 소비는 많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흑자 구간에 진입하는 연령이 늦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58세 이후에도 생애주기 수치는 적자로 전환된다. 다만 28세 이하처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민간자산배분 중 금융·임대소득과

공적자산배분 중 연금은 본인이 축적한 자산이나 경제활동 시기 적립한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서다. 특히 민간자산배분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동소득에 기인한 민간자산배분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 실장은 "미국은 민간자산배분의 비중이 높고, 유럽은 공공이전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며 "우리는 두 가지 길의 중간 정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18년 정부부처 업무평가

*기관명은 직제순 표기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우수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통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흡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국무조정실

농림·복지부 '우수'... 고용·환경부 '낙제'

2018년 정부부처 성적표
영어교육 혼선 교육부도 낙제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혼선을 빚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통계청 등 8개 부처가 지난해 업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2개 부처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 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환경부는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서 나쁜 평가를 받아 최하 등급으로 추락했다. 전년 평가에서 고용부는 우수, 환경부는 보통 평가를 받았었다.

통계청은 일자리 관련 지표 개발이 늦어졌고 가계소득통계 모집단 조사 방식을 둘러싼 혼선 등이 결정타였다. 통계청은 전년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보통에 랭크된 교육부와 법무부도 이번엔 미흡으로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2000명 증가와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이 긍정평가를 받았고,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등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고, 해양수산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 체감형 정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고 농림부와 해수부는 보통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전국으로 확대

60세 이상 경도 환자까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 방안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시행해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공후견사업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 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을 추가한다. 현재는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후견 대상자도 중증도 이상 치매환자에서 경도 치매환자까지, 65세 이상 치매환자에서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은퇴노인뿐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경제부총리·경제수석 현안 논의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주도 성장 한계... "서비스 분야 동력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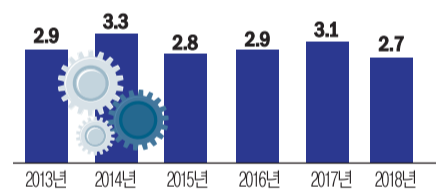
올 수출 부진·美경제 둔화 전망
"여가 문화산업 발전 공들여야"

지난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 주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올 세계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다.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미국 경제가 올해부터 꺾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5%와 3.6%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견인차인 수출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버티는 내수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성장률 (단위: %)



권영선 노무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 1분기(1~3월)에는 민간 부문 수요와 수출이 부진할 전망이다. 작년 4분기 비정상적이었던 정부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수,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인정하는 바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뤄지는 동안) 기업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미중 간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경제가 상승 전환할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내수 서비스 쪽에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가 문화 등 소비를 할 수 있는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작년 마이너스(-)0.2%포인트로 1년 만에 마이너스 기여로 돌아선 설비투자와의 미중 간 무역분쟁 결과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경기 방어적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 성장 전망치를 보면 기관에 따라 2.5%에서 2.7%까지 다양하다. 다만 미중 간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경기순환 측면에서 경기방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3000만원

정부, 미세먼지 감축 대책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낡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차 4만3300대, 수소차 4035대를 보급해 국내 친환경자동차를 1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우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유상할당을 위한 경쟁매가 1월 23일 처음 시행된다"며 "매월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2019년 한 해 최대 1988억 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이 150 $\mu\text{g}/\text{m}^3$ 에서 100 $\mu\text{g}/\text{m}^3$ 로 강화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노는 나라땅 74km²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에 활용한다

정부가 놓고 있는 국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해 혁신성장의 토대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km²(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용도 폐지 작업과 활용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혁신 성장과 생활 SOC 건설 사업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종=박중화 기자 pbell@

〈내달 4~6일 고속도로〉

설 통행료 면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10%

설 민생안정 주요 대책

-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 직거래 및 특판행사, 할인 확대
- 고용산업위기 지역 900억 원 수준 지원
- 코리아그랜드세일, 지역 설 축제 등 연계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4~6일)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확대
- 교통·의료 등 대응 체계 구축

주요 지원정책 규모

	2018년	2019년
신규대출·보증 지원	27조6000억 원	33조 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1조9000억 원	2조8000억 원
전통시장상품권	3000억 원	45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20억 원	1250억 원
복권기금 조기집행	3457억 원	4400억 원
고용부 일자리사업	12억 원	1366억 원
총규모	29조2000억 원	35조2000억 원

당정청, 민생대책에 35조 투입 일자리 안정자금 앞당겨 집행 영세법인 과납 법인세 조기환급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해 위기지역과 취약계층 지원에 35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설보다 6조 원 증액된 규모다. 늘어난 재원은 주로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와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앞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쳤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 원이 지원된다. 예비비 등의 목적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희망근로,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 중 조기 집행된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판매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량이 각각 4500억 원, 125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인다. 총규모는 지난해 설 명절의 약 1.6배 수준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지역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 휴가지원, 문화시설 등도 연계된다. 또 다음 달 4~6일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귀경 30~40% 할인, 공동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등 교통 편의도 제공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은 지난해 설 대비 5조5000억 원 확대되며, 2월분 일자리안정자금과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도 조기 지급된다. 중소기업·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앞당겨 환급된다.

조현정 기자 jhj@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낙연 총리 "정부·여당 더 겸허해져야"

'손혜원 투기 의혹'에 자성 촉구
한국, 2월국회 보이콧카드 압박
손 "반전의 빅카드 폭로할 것"



이낙연(사진) 국무총리가 22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전체의 '겸허한 자세'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이 없도록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쓴소리'를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각종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와 손 의원 의혹 규명을 연계해 2월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외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의원이 문화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에서 침체축구를 계속한다면 2월 국회를 거부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목표를 찾아 목포근대역사 문화거리와 도시재생 사업지 현장을 돌아본 뒤 이번 사안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을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손혜원 의원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손 의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을 높였다.

이에 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곧 반전의 빅카드가 폭로된다"며 "부디 뒷전으로 한발 물러나 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이 열린 22일 국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홍영표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오승현 기자 story@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첫날부터 파열음

당정·택시노조·카카오 참여... 상생 다짐했지만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8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고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구는 출범 첫날부터 파열음을 내며 난항을 예고했다.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적인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고,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출발점에서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일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당정을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몰타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반성의 기미 없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된 지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김하니 기자 honey@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 국내 손해보험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
-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
-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
-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
- 대한민국 여성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

침체기 스마트폰 시장, '앱'이 먹여살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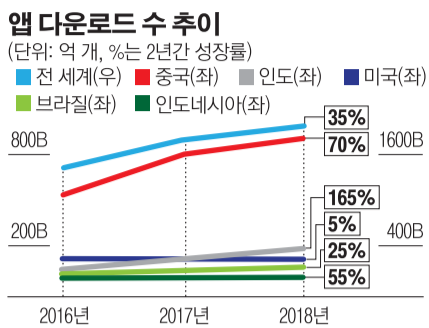
지난해 1940억 개 앱 다운로드
중서만 114兆, 전세계 지출 40%
성장 멈춘 시장 촉매제 역할 기대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침체됐지만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쓰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시장은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BC방송은 21일(현지시간) 앱 리서치 업체 앱애니(App Annie)의 '2019 모바일 상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했고, 총 1940억 개의 앱을 다운로드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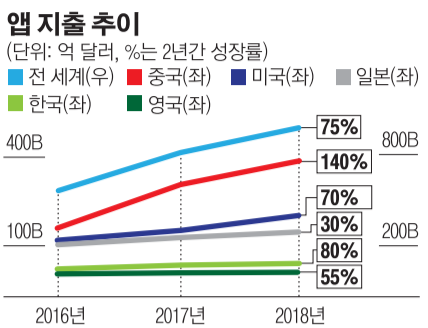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근심거리로 떠올랐지만 앱 시장에서만큼은 위력이 여전했다. 앱 다운로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와 함께 주목할 건 2016년에 비해



전 세계 앱 다운로드 수는 35% 증가했는데, 중국의 증가율은 70%로 두 배나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2년간 미국의 다운로드 증가율이 5%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지난해 앱 부문에서 1010억 달러(약 114조 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2016년보다 75% 늘어난 것이다. 중국은 전체 앱 지출에서 약 40% 비중을 차지했으며 2년간 증가율은 140%였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정부가 일시적으로 일부 게임에 대한 승인을 지연했지만 중국 앱 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방증이다.

앱애니의 제이드 탄 이사는 "중국 스마



트폰 시장은 독특하다. 발전이 도시마다 다르고 특색이 있다"며 "예를 들어 상하이와 베이징 등 스마트폰 시장이 매우 성숙한 대도시에서 사용자들은 앱을 덜 다운로드하지만 사용 시간은 다른 곳보다 더 길고 인앱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중소도시는 사실 아직도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두 가지 트렌드가 결합해 중국이 성장 엔진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앱애니는 중국 이외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모바일 서비스의 새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이드 탄 이

사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가 이제 막 인터넷과 연결하려는 시점에 있으며 이런 연결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 이사는 "이들 아시아 국가 사용자들은 중국만큼 앱 지출이 활발하지는 않다"며 "지출이 활성화하려면 촉매제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앱 지출을 일으킨 원동력은 워치 페이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지출하는 것은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일단 지출하면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앱 지출에는 유료 다운로드와 인앱 구매, 인앱 구독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앱 지출 중 모바일 게임 비중은 74%에 달했다. 비(非)게임 앱은 26%에 그쳤으나 이는 2016년의 18%에서 높아진 것이다. 인앱 구독 사업모델이 활성화되면서 게임이 아닌 앱들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앱애니는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EU, 美 IT기업에 부과한 제재

업체	시기 (벌금액(유로))	부과 이유
구글	2019년 1월 (5000만)	- 개인정보 이용 계약 설명 불충분 - GDPR 적용 첫 제재 사례
	2018년 7월 (43억4000만)	-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퀄컴	2018년 1월 (9억9700만)	시장 지배력 남용
구글	2017년 6월 (24억)	쇼핑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
페이스북	2017년 5월 (1억1000만)	왓츠앱 인수과정에서 허위정보 전달
마이크로소프트	2013년 3월 (5억6100만)	타사 웹브라우저 선택 제한

*출처: 니혼게이지아신문

美 IT공룡 손발 묶는 EU, 새 개인정보법

佛, 구글에 640억 과징금 폭탄

구글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중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프랑스로부터 거액의 벌금 철회를 맞았다. EU가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IT 공룡들의 사업 공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데이터 보호 주관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에 과징금 5000만 유로(약 640억 원)를 부과했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계약 설명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해 사용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5월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을 시행하고 나서 미국 기업이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아울러 CNIL이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구글은 유럽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고사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구글은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타깃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재로 구글만이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비상에 걸리게 됐다. 데이터 경제에 기반을 둔 사업모델이 EU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비영리기구 '논오브유어비즈니스(None of Your Business)'의 제소에 따라 CNIL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FT는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GDPR가 도입되자마자 구글안드로이드 OS와 페이스북, 페이스북 산하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을 제소했으며 넷플릭스와 구글 자회사 유튜브, 아마존과 애플, 스포티파이 등에 대해서도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프랑스는 물론 오스트리아 등 다른 EU 회원국들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미국 IT 기업들에 대해 GDPR과 관련해 제소한 상태라고 FT는 덧붙였다. IT 기업들이 무더기로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GDPR를 위반하는 기업은 과징금으로 최대 글로벌 연간 매출의 4%나 2000만 유로 중 높은 쪽이 부과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브렉시트發 헐값 매물 쏟아내는 영국 재벌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앞둔 영국에서 굵직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이름 난 자산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해지펀드계 큰손 켄 그리핀 시타델 설립자는 런던 중심부 버킹검 궁전 인근 저택들을 9500만 파운드(약 1383억 원)에 매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핀의 대변인 줄리 앤드리프 제슨은 이날 "그리핀이 최근 세인트 제임스의 칼턴 가든에 있는 저택 3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좋은 위치와 보기 드문 우아함,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역사적 자산"이라며 "런던에서 이런 저택을 살 참으로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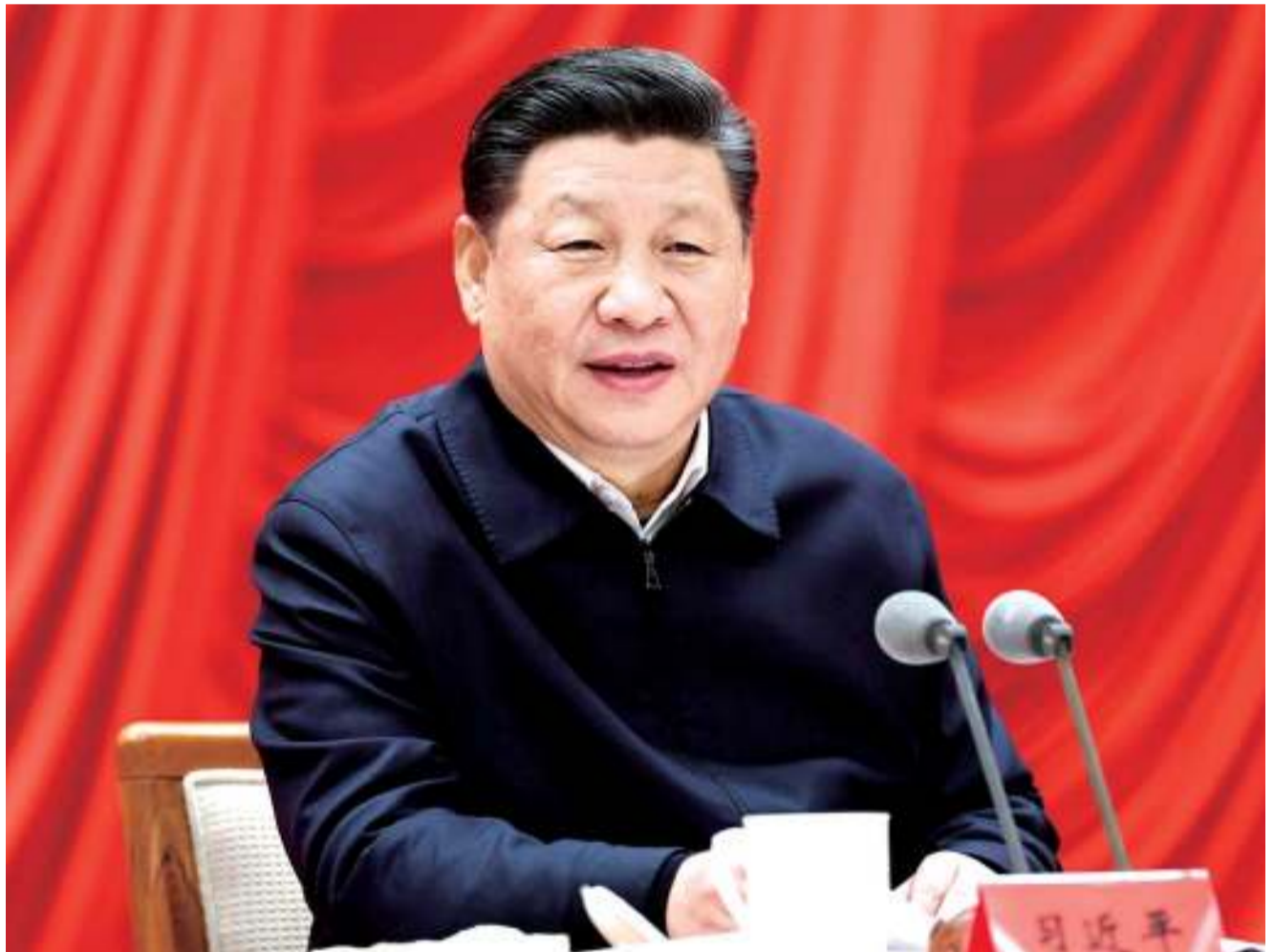
이번 매입 건은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어 나온 것이다. 영국 부동산 업체 사빌스에 따르면 런던의 고급 주택 가격은 2014년 정점에서 18.4% 떨어졌다. 이번 거래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그리핀이 이번에 매입한 저택 가격도 2년 전보다 13.44%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적어도 5명이 이 저택에 눈독을 들였는데, 최종 그리핀이 손에 넣게 됐다고 한다.

그리핀은 이 저택 외에도 미국에서 광범위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는 2017년 말 시카고에 있는 콘도미니엄 남버포월튼 4개 층을 5875만 달러에 매입했고,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의 랜드마크인 220센트럴파크사우스를 2000억 달러에 매입하기도 했다. 그는 또 플로리다 팜비치에 6개의 부동산을 약 6000만 달러에 사들이는 외에 하와이에도 2800만 달러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 재벌들의 헐값 매입 움직임은 이번만이 아니다. 영국 자산가 마이크 애슬리는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른 CD·DVD 업체 HMV그룹 구제에 나섰다. 그는 영국 스포츠 용품 체인점 스포츠 다이렉트 인터내셔널과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유자이기도 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파산 절차를 시작한 HMV가 애슬리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애슬리가 영국 소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당 간부들을 소집해 세미나를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신화뉴스

'中 성장쇼크' 시진핑 "공산당, 중대위험" 경고

28년 만의 최저 경제성장률에 비상 간부회의 소집 질타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해 벽두부터 이례적으로 공산당 간부들을 소집해 경종을 울렸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각 지방정부와 장관급 간부들을 모두 불러들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만큼 경기 둔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 지도부가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시 주석은 "당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주요 위협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안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 정책에서 이데올로기, 경제와 환경, 외부 환경까지 다양한 방안을 거론했다.

시진핑은 "당은 장기 통치 유지와 개혁 개방, 시장 주도의 경제, 외부 환경 등 장기적이면서 복잡한 시험에 맞닥뜨렸다"면서 "또 정신의 이완과 능력의 부족, 인민과의 거리감, 수동적이거나 부패하게 되는 등 급격하고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이는 실제 상황에 근거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 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2월 "긴박감을 갖고 당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당의 '장기 통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아직 시 주석 발언 전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 업체 트리비엄차이나의 에터 인 파트너는 "시진핑 주석이 여러 방면에서 점점 더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는 전체 시스템이 이런 적색 경고음에 주목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간부회의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날과 같은 날 열렸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6%로, 텐안먼 사태 충격에 휘말렸던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데니스 와일더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공산당이 더는 사회 안정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폭발할 수 있다"며 "개혁개방 시기에 이런 정도의 경기둔화는 현 세대 공산당 지도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19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첨단기술이 함께 뛰겠습니다

2018년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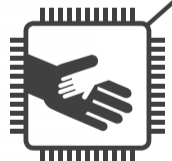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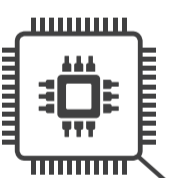


황금돼지야.
올해 잘 부탁해~~
나처럼 열심히 뛰려면
너 아마 다이어트 좀 해야 돼지?

그래 나도 올해엔
열심히
뛰어볼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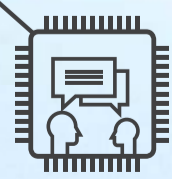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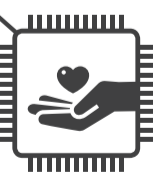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을 만들고
[DDR5 D램 개발, 96단 4D 낸드 플래시 개발]



모두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M15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장애인 일자리 확충]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치매노인을 위한 행복 GPS 지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시기기 실버프렌드 무상지원]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고민해왔던 2018년
[SK하이닉스 광고-대한민국 광고대상 통합 대상 수상]

경영 간섭 논리에... 새마을금고 '돈 잔치' 수수방관

행안부 '감독 권한' 무용지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산 집행'에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미비'와 '경영 간섭' 때문이다. 지금껏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고액 연봉'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2019년 '임원 보수' 총액을 40억4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에 새로 신설된 금고감독위원회 의원의 예상 연봉이 포함됐지만, 회장을 포함한 임원 연봉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중앙회 측은 "총회에서 결정할 일"라는 식으로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에 예산안이 보고되는 시점은 총회의 의결이 끝난 후다. 따라서 행안부는 최종 확정된 결과를 보고받는 데 그

임원 연봉 상승 자료 요청해도 "총회서 결정할 사항" 거절 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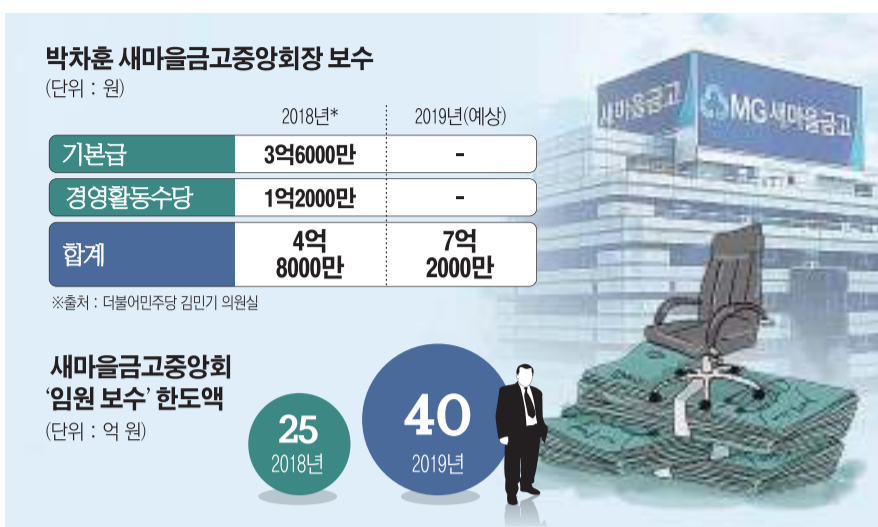
최종 보고만 받는 제한적 권한 중앙회장 예산 운영 전제 태부족

금고·중앙회 '공공성' 기초 설립 관리·감독 관여 명분 충분하지만 "관례대로 하니 문제 해결 안돼"

칠 뿐이다. 사전에 파악하고 개입할 여지도, 의지도 없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은 제한적"이라며 "경영 간섭 얘기가 나오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런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산에 관해 결정 사안을 보고받는 데 그친 것은 결국 예산을 중앙회가 마음껏 편성하라는 의미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예산 결정 과정에 중앙회장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사회는 중앙회장이 소집하

고, 총회는 중앙회장의 선거에 참여한 지역 금고 이사장들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중앙회장의 입맛대로 예산이 운영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의 대표 기관이다. 따라서 금고와 중앙회의 설립은 '공공성'을 기초로 한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행안부가 감독권을 펼 수 있는 가장 강력

한 논리다. 또 지역 금고의 감독 권한이 부여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적 기관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합회 시절이던 2009년에 법제처로부터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 당시 법제처는 "사업 및 활동에 일반법인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 취급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된다"며 중앙회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새마을금고법도 '금고'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며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회는 비영리 금고기관을 감독 및 지원하는 역할로 건립돼 재원도 금고에서 마련된다. 본질적으로 지역 서민들의 돈이 흘러 중앙회에 쌓이는 구조다. 단순히 행안부가 '경영 간섭'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껏 관성대로, 관례대로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객관산 기자 jinsan@

1 기준금리	2 가산금리				3 가감조정금리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기타	
입금 원가	- 리스크 프리미엄 - 유동성 프리미엄 - 신용 프리미엄 - 자본 비용	- 교육세 - 출연료 - 예보료 - 지준예치금	목표 이익률	- 부수 거래 감면 금리 -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은행권, 新코픽스 도입에 '울상'

소비자 보호 등 개편 공감했지만 수익성 악화 우려

금융당국이 22일 현행보다 변동형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0.27%포인트 떨어뜨리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 조달비용지수)를 내놓자 당장 은행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비자 보호'라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의 전체 틀에 공감하지만,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결제성 자금(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기타 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코픽스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코픽스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다.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에·적금과 상호부금 등 상품 자금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한다.

금융위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내놓은 이유는 은행이 실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지표를 매기기 위해서다. 결제성 자금은 예금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급해야 한다. 인출이 자유로운 탓에 자금 운용이 불안정해 코픽스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은행은 그동안 코픽스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으로 대출 재원을 조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출 재원 중 결제성 자금은 18.6%, 기타 예수·차입부채는 15.2%에 달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에 리스크 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통해 결정되는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서 상쇄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산금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높일 수 없어 금리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가산금리 산정 원가를 일일이 공개하기 힘들다"며 "은행이 금리 설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금융권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결제성 자금 등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 코픽스에 넣는 게 부담스럽다"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를 어렵게 올리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비용"이라고 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코픽스 주담대 금리 0.27%P ↓

▶1면서 계속

기타예수, 차입부채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 한은, 지자체에서 조달한 자금, 은행 간 정기에금 등이다. 이미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이자 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한다. 당국은 변동금리대출

은 중도에 상환해도 이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존·신규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각각 내린다.

다만 부당한 금리 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제로 주어졌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법안 발의에도 힘을 쏟는다.

사진 한 장 없는 '여신금융 신년간담회'

금융 인사이트

공식 행사에서 기념촬영은 빠지지 않는다. 어색한 사이라도, 불편한 사이라도 기념촬영에서는 나란히 손잡고서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하고 웃음을 지어 보이기 마련이다. 일부 정치인들조차 죽기살기식 정치 공세에도 기념촬영용 억지 미소는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약 기념촬영이 빠진 공식 행사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기념촬영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면, 또 어떨까.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선 카드사와 캐피탈사 대표가 참석하는 '여신금융업권 대표 신년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새해가 되면 매년 초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카드사와 캐피탈사 대표들이 인사를 나누는 정기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는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을 예고해 이례적으로 취재진이 많이 몰렸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귀띔할 정도였다. 몇 마디 기자의 질문과 윤 원장의 단답이 오간 뒤 간담회장 문은 굳게 닫혔다. 윤 원장이 간담회장에 들어간 시간은 오전 7시 30분께였다.

그러나 윤 원장이 예상보다 일찍 간담회장을 빠져나오면서 반전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 원장은 8시10분께 간담회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념촬영은 8시 30분을 전후로 예정돼



윤석현 금감원장 일찍 자리 떠 전의사항 청취 등 스킨십 없어 '리스크 관리' 원론적 당부만 협회·업계, 기념촬영 여부 갈려

있었다. 8시 10분은 아침식사와 함께 38명의 카드사와 캐피탈사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마치기엔 빠듯한 시간이다. 윤 원장은 입장 때처럼 별 말 없이 퇴장했다. 한 시간 남짓 경제 강연을 듣고 나온 대표들 역시 아무 말 없이 간담회장을 떠났다.

한 간담회 참석자에게 기념촬영 여부를 묻자 "노 코멘트"라는 말만 돌아왔다. 이날 간담회는 애초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원장과 38명의 업계 대표들이 함께 찍은 사진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여신협회는 전체 기념촬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비공개 행사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분위기가 좋은 간담회는 공개 발언

과 기념촬영을 한다'는 명제의 대우는 '공개 발언과 기념촬영을 하지 않으면 간담회 분위기가 안 좋았다'다. 물론, 수학 공식과 달리 간담회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항상 '참'일 순 없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날 간담회의 속살은 현재 여전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 건의 사항 청취나 금융당국의 새로운 당부 등 별다른 '스킨십' 없이 끝났다. 윤 원장이 입장에 앞서 "핀테크 혁명으로 금융 체질이 바뀌는 상황이니 이를 잘 고려해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는 발언과 여신업계의 리스크 관리 당부 등 원론적인 말만 공개됐다. 지난해 8월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캐피탈사 대표와 만나 "고금리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윤 원장은 25일 저축은행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공개도 비공개도 아닌 '일부 공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카뱅 "해외송금, 계좌번호 없어도 1분이면 OK"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과 손잡고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분 내로 송금할 수 있는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는 돈을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가 없어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영문 이름, 받을

국가, 보낼 금액만 입력하면 송금이 마무리된다.

돈을 받을 사람은 돈을 보낸 사람에게 10자리 송금번호(MTCN) 등의 송금 정보를 전달받아, 전 세계 200여 개국, 55만 WU가맹점(제휴 은행,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달러화 또는 현지 통화로 찾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돈을 보낸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송금 추적 기능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수수료는 기존 국내 WU해외송금 상품 수수료(영업점 기준) 대비 최대 95% 낮은 수준이다. 수수료는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3000달러(약 339만원)를 기준으로 이하는 6달러, 초과는 12달러다.

이행주 카카오뱅크 상품파트장은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대상 국가가 200여 개국으로 늘고,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와 함께 송금 수수료나 송금 소요 기간 등 고객의 상황과 기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객관산 기자 jinsan@

〈이재용 부회장〉

JY 복귀 1년 행보 보니... '뉴 삼성' 길이 보인다



1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구속 수감된 지 1년여 만에 항소심 공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해외 출장을 통해 신사업 발굴에 매진했다. 2 5월 중국 선전에 갔고, 3 7월에는 인도 노이다 스마트폰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 4 지난해 말에는 베트남서 총리 면담 및 현지 사업 점검에 나섰다. 5 신년 첫 행보로는 삼성 5G 라인 가동식에 참석한 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밖에 이 부회장은 백혈병 피해자 전원보상을 발표하는 등 신뢰 회복에 앞장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다음 달 5일로 1년째를 맞는다. 지난 1년간 이 부회장이 보인 행보를 종합해보면 삼성의 경영방향성은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사업 초격차'에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재계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년간 수시로 해외 출장길에 올라 인공지능(AI)·전장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매진했다.

특히 11년간 이어온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합의를 끌어내는 등 지지부진했던 삼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기업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는 등 정부와의 접점도 늘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영어(囀)의 몸에서 풀려난 후 굼직한 현안들에

미래 사업 초격차

북미·유럽·중국 등 매달 출장길 AI·전장 등 신사업 발굴 총력

국민 신뢰 회복

순환출자 해소·무노조 경영 폐기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전원 보상

3년간 180조 투자, 4만명 고용도

결단을 내렸고 투자도 미래 성장사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단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 부회장

은 과거 삼성이라면 쉽지 않았을 일들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전면 해소와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전원 보상 등 빠른 속도로 쇄신안을 내놨다.

지난해 8월 발표한 3년간 180조 원 투자, 4만 명 직접 채용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고용 계획이다. 지난해 약 400조 원인 정부 예산과 견줘도 과격적이다. 삼성전자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발생하지만, 전체 투자액(180조 원)의 70%가 넘는 130조 원을 국내에 쏟아붓는다.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지원과 같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사항들의 세부 실행 방안들을 속속 공개했다. 일련의 결정은 이 부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왔다"며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이 부회장의 고민은 새로운 노사정책과 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회공헌 혁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쇄신안 발표로 이어졌다.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과거 이견희 회장은 "10년 내 삼성 모든 제품은 사라질 것"이라며 끊임없는 먹거리 찾기를 강조했는데, 이 부회장 역시 발로 뛰며 먹거리 찾기에 매진했다.

지난해 자유의 몸이 된 후 거의 매달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3월 말 유럽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5월 중국, 6월 일본, 7월 인

도, 8월 유럽을 둘러봤다. 11월에는 베트남에서 총리도 접견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회장은 기해년 새해 첫 행보로 삼성전자 5G(5세대 이동통신) 라인 가동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 10일엔 5G 네트워크 장비 생산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를 직접 맞이하며 안내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한 이 부회장의 노력이 지난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올해 이후 삼성이 신사업 주도권 확보와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모비스 해외 수주 1.9兆 신기록...전기차 부품 60%

(모듈 제품 제외)

지난해 레이더·스마트램프 등 첨단 핵심부품 40% 이상 성장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인 17억 달러(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주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단위 조립 단위의 모듈 제품을 제외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심부품을 집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대모비스는 2015년 5억 달러, 2016년 10억 달러, 2017년 12억 달러를 해외 시장에서 수주한 데 이어 매년 지속적 수주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 미래차 기술 경쟁력이 돋보이는 첨단 부품을 대거 수주했다.

현대모비스는 '차세대 측방 레이더(79GHz)'를 북미 업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레이더는 물체 식별 성능이 뛰어나 자율주행차의 센싱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해주는 첨단 부품이다.

'운전대 장착 디스플레이'와 '차량 스마트 램프' 등 미래 첨단 기술도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했다. 이들 제품은 자동차와 사용자의 혁신적 소통을 돕는다. 현대모비스가 해외 수주를 통해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나선다.

'운전대 장착형 디스플레이'는 운전대에

정보 표시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태블릿을 적용해 운전자와 차량 간 소통을 돕는 미래형 기술이다. '스마트 램프'는 차량의 특정 면적에 빛 패턴을 표현하는 기술로, 전기차 충전 상태 등 자동차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면서 디자인 감성도 높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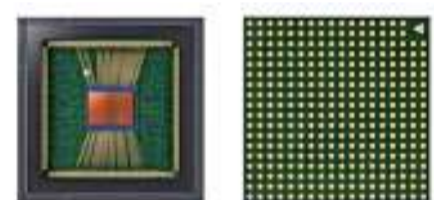
'전동식 조향장치'와 '에어백 제어장치' 등 핵심부품도 지난해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한 제품 포트폴리오에 포함됐다. 현대모비스의 '전동식 조향장치'는 모터 출력이 해외 경쟁 제품보다 40% 이상 높아 극한의 핸들링에서도 안정적 조향 성능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에어백 제어장치'는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전장부품 기능안전 인증(ISO 26262)을 받은 품목이다.

지난해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 전기차 업체의 러브콜을 많이 받은 점도 사상 최대 해외 수주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전체 해외 수주액의 60%에 가까운 1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부품을 전기차 업체에서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시스템 단위의 부품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내년까지 레이더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주요 자율주행 센서를 확보한다는 계획인 만큼 미래형 첨단 부품 수주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의 올해 부품 수주 목표액은 21억 달러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극초미세먼지보다 작게 카메라픽셀 소형화 성공

삼성 휴대폰용 2000만 화소 센서

삼성전자가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 스마트폰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크기는 줄이고 화질은 높은 이미지 센서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0.75cm(1/3.4인치) 크기, 2000만 화소의 고화질을 지원하는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ISOCELL) 슬림 3T2'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소셀 슬림 3T2'는 0.8μm(마이크로미터) 초소형 픽셀로 구성된 제품으로 광(光) 손실과 간섭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을 적용해 베젤리스 디자인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홀 디스플레이(hole-in display)' '노치 디스플레이(notch-display)'와 같이 화면의 크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픽셀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 제품은 전면 카메라로 사용 시 4개의 픽셀을 1개처럼 동작시켜서 감도를 4배 높이는 '테트라셀' 기술이 적용돼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또 후면 카메라용으로 활용 시 2000만 화소의 고화질로 고배율 망원 카메라에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특히 10배 디지털 줌 사용 시에는 동일 크기의 13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대비 해상도를 약 60% 개선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슬림 3T2'를 올해 1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차 신형 유니버스 공개 줄음 경고·차간 유지 기능

현대자동차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대형차의 줄음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형 유니버스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22일 디자인과 내장을 변경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니버스 상품성 개선 모델을 공개했다. 3월 출시 예정인 유니버스는 차 길이가 0.5m 늘어나 12.5m에 달하는 최고급형 모델 '노블EX'를 추가했다. 늘어난 차 길이 덕에 앞뒤 좌석 간 거리가 이전보다 약 6cm 길어졌다.

특히 신형 유니버스는 대형버스 및 화물차의 줄음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갖췄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나 줄음운전 등을 감지하면 곧바로 경고를 울린다. 앞서 달리는 차가 급제동할 때에도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울린다. 줄음운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주행 때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새롭게 도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범LG家 맞손...GS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LG전자·GS칼텍스 업무 협약을 하반기 초고속 충전기 설치 인공지능 차량 서비스 검토

'범LG가(家)'인 LG와 GS가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형 주유소'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회사는 주유하는 공간을 넘어 전기차 충전은 물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경정비까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LG전자와 GS칼텍스는 22일 LG전자 서초R&D 캠퍼스 사옥에서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정비·세차 서비스 이외에 전기차 충전, 전기차 세어링, 전기차 경정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양사는 전



장인영 GS칼텍스 부사장과 박일평(왼쪽) LG전자 사장이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기차 보급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주유소 공간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구상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융복합 스테이션에 도입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LG전자의 350kW급 초고속 멀티 충전기로, 장기적으로는 로봇 충전 및 무선 충전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융복합 스테이션에 '인공지능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고객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사이니지는 충전 중인 차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수리를 추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 융복합 스테이션은 올 하반기 중 서울 도심권에 위치한 GS칼텍스 직영주유소에 조성될 예정이다. LG전자와 GS칼텍스는 향후 기존 주유소를 단계별로 융복합 스테이션으로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스타트업과 함께 에너지-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발굴과 사업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해에도 SK에너지와 함께 주유소 거점의 택배서비스 '홈픽(Homepick)', 주유소를 활용한 스마트 보관함 서비스 '큐부(QBoo)' 등을 선보이며 주유소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권태성 기자 tskwon@

“5G, 2등은 의미없다…韓 일정대로 세계 움직일 것”

경제부처 수장들 5G 산업현장 간담회

“5G(5세대 이동통신) 개척자가 시장을 선도하고 향후 관련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 시장에서 2등은 의미가 없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LG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5G 산업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5G 상용화를 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웠다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제시한 일정대로 세계의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찬호 우성엔앰피 사장, 황호진 삼화콘덴서 사장 등 기업인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5G기술과 관련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5G(5세대) 이동통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등과 주요 5G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과기·산업·중기부 장관 참석
3월 상용화 앞두고 기술표준 자신
정부 지원 약속과 기업 협업 강조
기업들 “네트워크망 확대” 화답**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5G 상용화가 되면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콘텐츠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콘텐츠·서비스 분야 자동차,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 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디바이스 기업 등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 퍼스트무버로서 통신 보안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인프라를 갖게 됐는데 산업적 파급효과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혁신과 5G,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R&D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투자펀드,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구축 등 대기업의 협력 활동을 후원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5G기술 개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기업과 연구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도 이에 화답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19년 상반기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를 시작으로 ’19년 말까지 주요지역에 5G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85개 시, 군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5G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는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모멘텀이자 초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실시간 동영상과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 로봇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부회장은 또 5G 스마트폰 제품이 상용화 시기에 맞게 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3월 말까지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준비 중인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 드론, 원격제어 트랙터, 다이나믹 정밀지도, 클라우드 VR 게임 등 5G 서비스가 시연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삼성重 사내 협력사들 ‘3개월 이직 제한’ 폐지

**삼성重·협력사·노조 합의
취업 동의서 안 받기로
현장에서 “실행될까 의문”
2년 전 합의도 유명무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협력사 간 이직을 가로막았던 ‘취업규제 3개월’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관련업계와 이투데이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김수복 삼성중공업 협력사 협의회 회장과 김경습 삼성중공업 일반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각 부문(도장·의장·선각) 부회장들은 17일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취업규제 3개월’ 원칙을 없애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삼성중공업의 협력사 직원들은 협력업체 A사에서 B사로 이직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출근이 불가능했으며 퇴사 이후 3개월이라는 휴지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는 협력사들이 자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이었다. 또 이직을 할 경우 해당 업

체로부터 취업 동의서, 취업 추천서, 취업 허락서 등에 승인을 받아야 회사를 옮길 수 있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힘들었다.

이에 협의회와 노조 등은 이번 합의서를 통해 동의서, 추천서 등 관련 서류 승인 규정을 모두 없애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채용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이직을 원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즉각 퇴사 처리기로 했고 대면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서 제출 방법을 다양화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협력사 직원은 “이런 합의서 아무리 쓴다 해도 암암리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왕왕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16년 6월에도 협력사 협의회와 노조가 당시 관행이었던 ‘취업규제 6개월’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리 소문없이 ‘3개월 취업규제’가 부활하며 다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중 광산, 두산 굴삭기 36대 계약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유력 광산회사 ‘네이멍구 몽신 석탄 유한책임회사(이하 몽신집단)’와 대규모 굴삭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80톤급(DX800) 6대, 52톤급(DX520) 20대, 38톤급(DX380) 10대 등 총 36대다. 이들 굴삭기는 중국 광산 밀집 지역인 네이멍구에서 쓰일 예정이다. 광산 4곳을 운영하며 연간 약 2000만 톤

의 석탄을 채굴하는 몽신집단은 대형 굴삭기 100여 대와 휠로더 30대 이상을 운용하는 대형 고객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그간 중국 시장에서 30톤급 이하 중소형 굴삭기의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대형 굴삭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번 공급 계약은 상호 윈윈(Win-win)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광산시장의 유력 고객사를 장기적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UNIQUEMI
제주 방림원
화산송이동굴 100일 발효
Uniquemi Premium Mask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유니크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하나금융그룹



손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KEB하나은행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반차내서 은행 가지 마세요
 점심 대신 은행 가지 마세요
 이제, 시간내서 은행 가지 마세요
 KEB하나은행이 손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란?

은행 방문 없이 손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편하신 시간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KEB하나은행의 금융서비스

상담신청 방법

- 모바일 : QR코드 인식 → 전용 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 인터넷 :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 상담신청 전용콜 1566-0019

정윤모 이사장 “벤처 혁신 종합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기보 신년 기자간담회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올해 신규 보증 4조5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0조2000억 원 규모의 보증 사업을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중기 혁신성장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 기보의 주요 혁신 사업으로 △특허가치 자동 산출 ‘IP 패스트보증’ △혁신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예비창업자 전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민간투자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소개했다.

지식재산(IP) 패스트보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혁신기업에 증가, 이들 기업을 제대로 보증하고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줄 수

IP 패스트보증 등 혁신사업 소상공인 8750억 협약보증 중소벤처 지원 전 연령층 확대

20조2000억 규모 보증사업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있는 제도다. 기보는 이를 위해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관리해 온 7500여 개사의 지식재산 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KPAS는 기업의 예상 매출액과 규모 등을 변수로 넣으면 1분 안에 해당 기업의 특허가치금액이 자동 산출된다. 서비스는 2월 출시된다. 등록 후 5년 이내 특허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허가치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2억 원 이하의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 검증 절차가 신속해지고, 평가료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정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하는 IP혁신이 기업의 가치와 성장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IP패스트보증은 우리가 원하는 기술벤처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보는 올해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해 87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실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지원은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로만 한정하고, 창업 6개월 미만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특허분쟁 및 기술탈취로 애를 먹고 있는 중기 지원에 공들일 방침이다. 유망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선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제도 결성한다.

정 이사장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간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분야 선정 및 사업에 활용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기보는 기술·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업 보증도 확대한다. 혁신성장산업 보증공급 규모는 작년보다 5000억 원 증액한 4조 원으로 편성했다. 공적 기관으로서의 투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 초기·지방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26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임팩트 보증도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700억 원 규모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소통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혁신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벤처혁신 종합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역점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술보증기금



“전통시장에서 설맛이 장보세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22일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세 행사를 펼쳤다. 행사에는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과 최전남 부회장, 맹부영 서울지역회장,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서석호 이사장과 정용주 이사, 임원배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금천구) 등이 참여했다.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청년창업 지원한다더니... 갑질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에도 제 말을 들어주는 곳이 없어요. 자기들만 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틀리면 무조건 반려시키는 ‘갑질 횡포’에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자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청년 창업자 지원사업에 참가한 A사 김모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선정만 되면 재정 부담 없이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1500여 업체를 대상으로 1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

자먹기로 해당 지침을 물어본 뒤 이를 지켜 제품 구입비를 타낸 김 대표는 이후 다른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대금 청구서를 제출했다가 또다시 반려 처분을 받았다. 그때 역시 담당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충북센터에서만 13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데, 자신 말고도 다수의 업체 대표가 같은 이유로 번번이 자금 지급에 퇴짜를 맞았고, 일부는 담당자를 찾아가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참다 못한 김 대표와 일부 참여자들이 주관 기관인 창업진흥원에 문의해 보니 자금 집행 등은 ‘운영기관’에 일임했다는 책임 떠넘기기식 답변이 전부였다.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충북혁신센터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았다” 자금 지급 번번이 퇴짜 선정업체 반발에 “규정 지켰을 뿐... 문제없다” 해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중계자 역할만” 책임 떠넘기기

는 시스템이다. 업체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5개 관계부처 산하 기관 등에서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께 서류전형과 실기, 면접까지 보가며 공모에 참여했고, 가가스로 5000만 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따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기대는 자금 집행 개시와 함께 처참히 무너졌다.

김 대표가 소속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가 인건비를 비롯한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지급 수수료,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임차비, 활동비 등을 청구할 때마다 납득하기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반려를 했던 것.

앞서 창업진흥원 교육 등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가이드라인이라 울며 겨

이에 대해 운영기관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미 업체에 구체적인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을 알려줬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 반려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에 대해선 ‘대외비’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센터 관계자는 “자금 집행에 불만이 있는 일부 업체의 의혹 제기”라며 “창업진흥원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춰 자금 지원을 했을 뿐 해당 업체가 말하는 ‘갑질’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관기관인 창업진흥원 측은 “운영기관인 충북센터 측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업체 대표에게 제시했는가와, 과연 이 과정에서 ‘갑질’ 여부가 있었는지는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자금 지원에 대해 창업진흥원은 중계자 역할만 할 뿐 관련 권한은 해당 센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기자 yes@

‘클라우드 영토’ 확장 나선 NHN엔터

‘토스트’ 앞세워 금융·쇼핑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 2월 일본, 5월 북미지역 서버 구축... 해외진출 박차

NHN엔터테인먼트가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선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2일 경기 판교 사옥 플레이뮤지엄에서 ‘2019 TOAST 사업전략 기자간담회’를 열어 클라우드 솔루션 ‘TOAST’의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NHN엔터테인먼트의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하는 백도민 CIO는 “NHN엔터테인먼트는 TOAST의 독자적 ‘클라우드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속해왔다”며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강조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구축한 친환경 도심형 데이터센터 ‘TCC(TOAST Cloud Center)’를 보유하고 있다. 또 보안관계 컨설팅 기업 ‘파이오링크’, DB보안 영역의 ‘피엔피시큐어’, 웹호스팅 기업 ‘NHN고도’ 등 자회사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서포트한다.

올해 금융과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동훈 클라우드 사업부 이사는 “2019년 TOAST는 금융과 쇼핑 분야를 발판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올해 TOAST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TOAST는 국내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온프레미스 고객의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금융과 공공 분야 등 자체 구축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다수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택하는 ‘멀티 클라우드’를 모두 서비스한다. 이를 통해 TOAST는 기업마다 각기 다른 보안, 서버 정책을 충족하며 효율적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일본 도쿄에는 2월, 북미는 5월에 TOAST의 글로벌 리전(데이터센터)이 오픈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넷마블,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게임 매출 5위

넷마블이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 부문 상위 5위를 차지했다.

22일 모바일 앱마켓 분석사이트 앱애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해 텐센트, 넷이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반다이 남코에 이어 글로벌 모바일 게임 매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은 현재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매출 순위 톱10에 등극했다. 모바일 게임 주요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란히 6위를 차지했으며, 유럽의 영국, 프랑스에서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

는 2위를,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올해도 다양한 신작을 출시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K-POP과 K-GAME를 결합한 ‘BTS 월드’, 지난해 일본에서 선출 시한 액션 RPG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박항서 소시지·김치 주세요” 대상, 베트남 매출 날개 달았다

박항서 감독 현지 모델 효과
득비엣푸드 소시지 히트상품에
동남아 총매출 중 베트남 비중
45%까지 확대...위상 높아져
올 해외매출 첫 1兆 달성 목표



대상의 베트남 현지법인 득비엣푸드(Duc Viet Food)는 지난해 여름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팀 감독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용 소시지 신제품 TV CF를 선보였다. 사진제공 대상

대상이 ‘박항서 효과’에 힘입어 올해 해외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2배가량 늘린 1조 원으로 높여 잡았다.

대상은 지난해부터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베트남 현지 모델로 발탁한 결과 동남아 시장에서 베트남 매출 비중이 45%까지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에 안착하면서 대상은 스포츠키컵에 이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3월 박항서 감독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 육가공 브랜드 ‘득비엣푸드(Duc Viet Food)’와 김치 브랜드 ‘종가집’ 광고를 선보여왔다.

대상의 베트남 육가공사업 법인인 득비엣푸드는 지난해 여름 어린이 소시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박항서 감독이 출연하는 TV CF를 제작해 베트남 국영 채널인 VTV3을 통해 송출했다. 이 제품은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단기간에 히트상품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박항서 소시지’라는 닉네임이 붙은 어린이 소시지의 선전으로 지난해 대

상의 베트남 매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상은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빌딩, 복합쇼핑몰, 택시, 동영상 등 다양한 광고채널을 적극 활용했다.

박항서 효과 덕분에 동남아 지역에서의 대상의 위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상의 글로벌 식품 사업 전체 매출에서 동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한다. 이 중 베트남에서의 매출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사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박항서 감독 광고가 온에어된 6월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했다.

대상 베트남 육가공법인 득비엣푸드 조남일 대표는 “지난해 1월 AFC U-23 챔피언십 결승 진출에 이어 아시안게임 4강,

2018 AFF 스포츠키컵 우승, 최근 아시안컵 8강 진출까지 달성하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박 감독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가 광고 효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주)은 1994년 베트남 정부의 투자허가를 받아 미원 베트남(MIWON VIETNAM CO.LTD)을 최초 설립했다. 1995년 하노이시 인근 벳찌에 공장을 설립해 본격적인 MSG 생산·판매를 시작했고 2002년 이후 국물용 복합조미료, 튀김가루, 칠리소스, 간장 등 라인업을 확대하며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대상이 2016년 9월 인수한 베트남 현지 신선소시지 가공업체인 득비엣푸드의 2020년 매출 목표는 500억 원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도화새우 설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이 명절을 맞아 ‘동해의 대하’로 불리는 도화새우를 생물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신세계는 독도새우 중 가장 귀한 상품으로 취급되는 도화새우를 냉장 선물세트로 준비해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경기점, 의정부점 수산 코너에서만 판매한다. 사진제공 신세계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매각 노사 갈등

노조 “상의 없이 결정...떡튀 경영 전형” 투쟁 예고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 매각을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내용이 예상된다.

페르노리카코리아(PRK)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을 드링스인터내셔널에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페리얼의 영업과 유통은 3월 1일부터 드링스 인터내셔널로 이관된다. 드링스인터내셔널은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다이아지오코리아를 거쳐 골든블루 대표를 역임한 김일주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프랑스 주류 기업인 페르노리카(Pernod Ricard) 그룹은 그동안 한국 법인을 이원화해왔다. 발렌타인, 앵술루트 등 수입 브랜드를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국내 내용 브랜드인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로 나눠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임

페리얼 매각 후 발렌타인, 앵술루트 등 글로벌 브랜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각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번 매각에서 노조를 배제하면서 직원 갑질로 불거진 노사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이번 매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상태다.

매각에 대한 노사의 참여한 대답은 매각 발표 직후부터 감지되고 있다. 회사 측은 “페르노리카코리아는 효율적인 조직 변화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2년간 프랑스 본사의 배당액이 300억 원이 넘는”이라며 “직원 희생을 담보로 이익만 챙기려는 ‘떡튀 경영’의 전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류 업계에서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의 매각을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

이 강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위스키 시장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배당금을 챙기면서 고의적으로 적자 기업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994년 출시된 브랜드인 임페리얼은 한때 국내 위스키 시장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으나 현재는 골든블루와 원저에 뒤처지며 3위로 밀렸다.

판매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페르노리카는 고배당 성향을 이어갔다. 최근 3년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프랑스 본사에 제공한 배당금은 458억5000만 원이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의 매각으로 회사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단기간에 노사 갈등이 매듭지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불거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청이 징계 조치를 권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묵살한 상태다. 오히려 장 투블 대표는 갑질 임원을 폭로한 노조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中 최대 명절 ‘춘제’ 앞두고 ‘왕홍’ 내세운 면세점 업계

방송 조회 수 3000만 이상
신라·롯데 등 기획 초청



신라면세점이 초청한 왕홍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라면세점

면세점 업계가 ‘글로벌 마케팅’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19조 원 가운데 80%를 외국인인 차지한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열어 올해도 매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다. 면세점 업계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파워블로거 ‘왕홍(網紅)’을 활용해 면세점과 상품을 소개하는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중국의 파워블로거 왕홍 초청 라이브 방송을 기획했다고 22일 밝혔다. 18·19일 선보인 라이브 방송이 약 30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노출 효과를 톡톡히 본 데 이어 23·24일에도 왕홍 초청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미평위’, ‘씨트립’, ‘투뉴’ 등 중국 유명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의 여행 전문 왕홍이 서울점에 방문해 신라면세점에서 마련한 춘제 혜택과 행사를 소개한다.

롯데면세점 웰드타워점은 지난해 12월 왕홍 100명을 위한 부스를 마련하고,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도 지난해 11월 왕홍 3명을 초청해 이달 22일 왕홍 100명을 위한 부스를 마련하고,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도 지난해 11월 왕홍 3명을 초청해 이달 22일 왕홍 100명을 위한 부스를 마련하고,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도 지난해 11월 왕홍 3명을 초청해 이달 22일 왕홍 100명을 위한 부스를 마련하고,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한류스타’를 활용한 마케팅도 눈에

백미선 기자 only@

“콩 발효 요리 에센스 ‘연두’ 해외선 소금 대신 사용”

‘콩 발효’ 예찬 박진선 대표



5%를 투자하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2%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큰 수치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요리 에센스 ‘연두’는 (한식뿐 아니라 서양식 요리에서도) 소금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나트륨을 훨씬 덜 섭취하면서 보다 음식을 맛있게 해줍니다.”

박진선(사진) 대표식품 대표이사 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4층 한식문화관에서 진행된 ‘글로벌 채식 트렌드의 해법, 우리맛 에센스 콩 발효에서 찾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행사 내내 서서 직접 진행 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순식물성 콩발효 에센스 ‘연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기자와 만나 “우리가 한식을 요리할 때 간장을 쓰듯이 서양에서는 연두를 이같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소스라 생각한다”면서 연두의 가치를 “조선간장 원리를 통해 만들어낸 요리 에센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두는 스페인에서는 미술랭 셰프들이 쓸 정도로 탄탄하게 사랑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뉴욕 맨해튼에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를 열었다. 대표식품은 기초과학, 발효, 우리 음식문화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표식품은 발효 기술에 매출액의 4~

뉴욕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는 세계 식품 트렌드의 시작점인 뉴욕에서 한식의 콩발효를 대표하는 연두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이다. 연두를 활용한 다양한 클래스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현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욕 스튜디오의 자우마 비아르네즈 수석 셰프가 주한 외국인을 초청해 요리 에센스 연두를 활용한 각종 요리법을 선보였다. 비아르네즈 셰프는 스페인 유명 레스토랑 ‘엘 불리’ 출신으로 스페인 요리과학연구소 ‘알리시아’에서 13년 넘게 요리 개발에 매진해온 전문가다.

그는 “한국의 콩 발효 기술로 만든 연두는 채소의 쓴맛을 줄여줘 채식 트렌드에 적합하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각국 요리는 물론 뉴욕에서 인기몰이 중인 ‘채식 트렌드’와도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폭풍 매수’ 外人, 현대차·셀트리온 털어내는 이유는

셀트리온, 작년 3분기 이어 4분기도 ‘어닝쇼크’ 전망
현대차, 주력제품 발주 물량 부재에 목표 주가 낮춰

올 들어 ‘사자’에 나서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인 일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팔자’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철저히 ‘실적’에 기반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9일부터 22일까지 10거래일 연속 1조695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8119억 원)와 SK하이닉스(3367억 원), 삼성SDI(1090억 원), LG화학(691억 원), 한국전력(679억 원), LG디스플레이(521억 원)

등을 집중 매수했다.

반면 셀트리온(1158억 원), 현대차(742억 원), SK이노베이션(574억 원), 삼성전기(570억 원), 현대모비스(453억 원), 카카오(345억 원), 삼성물산(278억 원), 한온시스템(265억 원) 등은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투심이 엇갈리는 것은 ‘실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4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연간 실적으로는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LG화학의 경우 전지부문에서 사상 처

종목명	수량(100주)	금액(100만 원)
셀트리온	5,743	115,842
현대차	5,895	74,281
SK이노베이션	3,177	57,499
삼성전기	5,998	57,097
현대모비스	2,152	45,324
카카오	3,473	34,537
삼성물산	2,428	27,840
한온시스템	22,064	26,534
인씨소프트	498	23,352
GS리테일	6,307	22,666

음으로 손익분기점(BEP)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 매력에 높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 중”이라며 “이 업종은 과거 평균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 괴리율이 크고, 2년 내 고점 대비 가격 측면에서도 저평가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8% 감소한 259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 858억 원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력제품 발주 물량 부재와 함양제 바이오시

밀러 공급단가 인하로 이익률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낮추기도 했다.

외국인이 연일 팔자에 나서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도 부진한 모습이다. 18일 셀트리온의 주가는 19만45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나 7917억 원, 매출은 5.2% 증가한 25조7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전망”이라며 “신차 출시 초기 마케팅 비용이 먼저 반영돼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자금 부족’ 유니슨, 영광풍력발전 160억에 매각

2016년 영업적자... 작년도 ‘뚝’
신사업 투자 지속 부담 커져
285만 주 대한그린에 매각기로
재무구조 개선 땀 재인수 가능성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누적
매출액	525	1,867	1,559
영업이익	-98	161	71
당기순이익	-326	11	-70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자금 실태 부족으로 영광풍력발전 지분을 160억 원에 매각하는 강수를 뒀다.

유니슨은 22일 영광풍력발전 보유 주식 285만 주를 159억6000만 원에 대한그린에너지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5600원으로 순수 매각차익은 17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후 보유 지분율은 37만5000주(5.0%)로 쪼그라든다. 2015년 초기 투자 이후 약 3년 6개월여 만이다. 회사 측은 “투자금 회수에 따른 유동성 확보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3년 5월 설립된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는 신규 풍력발전 단지의 개발·설계, 자금조달, 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

된 특수목적기업(SPC)이다. 유니슨은 한국동서발전, 대한그린에너지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했다. 영광풍력발전은 작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다소 지연되면서 이달 초 준공됐다. 현재 풍력발전을 가동 중이다.

유니슨이 영광풍력발전 가동 개시에도 운영권이 달린 지분을 매각하는데는 유동성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누적(1~3분기) 영업이익은 71억 원으로 2017년(161억 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98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기도 했다. 연간 영업실적이 불안정한 가운데

신사업 투자를 지속하는 데 따른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유니슨이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풍력발전사업 운영권을 일부 되찾아 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무상황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벤처캐피탈(VC)인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가 펀드자금을 통해 재무적투자자(FI)로 합류하기도 했다.

유니슨은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2호,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0호와 함께 대한그린에너지가 발행할 예정인 제 3·4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사채권(95억 원)에 대한 매수청구권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유니슨은 사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60일 이내에 대한그린에너지 측에 사채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행사된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 매매대금 지급일에 대한그린에너지로부터 사채권 상환을 받거나 사채권 매매대금 상당액만큼 영광풍력발전 보통주를 다시 매수할 수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에코프로, 2차전지 성장세에 ‘퀀텀점프’

국내 유일 NCA 양극활 소재 생산
작년 매출 6671억 전년비 102% ↑
생산 규모 월 2300톤 증설 추진
업계 1위 스톱모 생산량 근접

연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2016년	3290	218	-72
2018년	6671	602	327
2020년	13518	1353	978

에코프로가 전방산업인 2차전지 사업 성장세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뛰어오를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지난해 연결기준 602억 원의 영업이익과 667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76.35%, 102.75% 늘어난 수치다.

에코프로는 2016년 이후 이른바 ‘퀀텀점프’하고 있다. 에코프로의 2016년 매출은 1705억 원, 영업이익은 101억 원이다. 다만 외환손실과 자산손상차손, 기타대손상각비가 발생한 탓에 순이익 부문에서 적자가 났다. 이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90억 원, 218억 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8년은 2016년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는 성적을 거뒀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각각 9259억 원, 1조3518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부 증권사는 매출 예상치를 1조7000억 원대로 내놓기도 했다. 또 영업이익 규모는 각각 878억 원, 1353억 원으로 예상됐다. 2018년과 비교해 2020년 예상 실적이 두 배가량 성장하는 셈이다.

가파른 성장세는 2차전지 사업에 기인한다. 에코프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소재 중 하나인 NCA 계열 양극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6년 기준 일련의 스톱모에 이어 글로벌 시장점유율 31%로 2위다.

코스닥 상장을 앞둔 에코프로비엠이 전지재료 사업을, 모회사인 에코프로는 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NCA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에코프로는 대규모 증설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NCA 캐파는 2016년 말 380톤에서 500톤으로 증가했다. 2017년 9월에는 대규모 증설이 완료되며 980톤으로 늘었는데 신규 공장 가동 두 달 만에 약 900톤 규모의 추가 증설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생산 규모는 월 2000톤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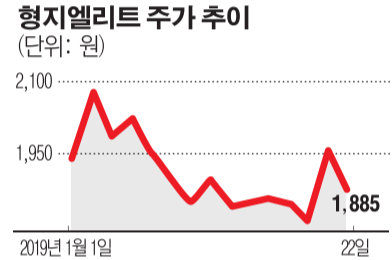
게다가 작년 7월 경북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에코프로비엠 신규 시설 부지에 1단계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올해 8월까지 월 2300톤 규모의 증설을 한다고 밝히, 기존 오창사업장 병행 투자까지 합치게 되면 올해 말에는 총 캐파가 월 4600톤에 이르게 된다. 업계 1위 스톱모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공격적인 투자로 외부 차입이 늘면서 에코프로의 재무안정성은 다소 훼손되는 모양새다. 2016년 99.4%였던 부채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180.3%로 급격히 증가했다. 순차입금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2.2%에서 120.0%로 늘었다. 다만 이자보상배율은 1배 수준에서 4.2배 수준으로 늘어 영업활동을 통한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부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연매출 1500억 원 목표 中 교복시장 집중 공략”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형지엘리트



“내 몸에 딱 엘리트!” 학생 교복으로 유명한 형지엘리트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2009년 코스피 상장 이후 꾸준한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5개의 지점과 177개의 대리점을 운영 중이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 중국 진출 성과는?
“교복 사업은 학교와 기업 간 거래(B2B) 방식 계약이다. 학교가 학부모 주문을 취합하고 업체는 일괄 납품하는 방식이다. 베이징 왕부학교, 사면 중국 영재학교, 광저우 보슬러 교육그룹 등이 주요 거래처다.

지난해 중국 인기 걸그룹 SNH48과의 교복 화보 제작으로 현지 인지도가 높아졌다. 전년 대비 2.7배 늘어난 162억 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현재는 중국 상하이의 국제 및 사립학교를 비롯해 최상위 주요 32개 도시, 1500여 개 학교를 집중 공략 중이다. 2022년 수주잔고 3500억 원, 연매출액 1500억 원 달성이 목표다.”

- 최근 공시한 B2B(기업간 거래) 사업 다각화 내용은?
“B2B 특수사업부는 원래 삼성전자, 포스코, S-Oil 등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니폼을 제조하고 납품하던 조직이다. 구매·생산 하도급 영업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패션 전문 소싱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단순 생산·구매뿐 아니라 맞춤형 제품 기획, 제조, 납품까지 아우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20여 개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모회사 형지그룹의 오더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일반 중소 패션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할 계획이다.

- 자회사 에스콰이어 현황은?
“2015년 인수한 에스콰이어는 최근 3년간 △상품권 발행 중단 △비효율 및 고비용 자가 공장 매각 △해의 소상처 지속 확대 등 내실 강화에 주력했다. 연 23억 원가량의 고정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디자인과 기능성 등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브랜드 ‘영에이지’, ‘미스&미스터’ 영업을 강화하고 아웃렛 시장을 집중 공략해 매출 확대에 성공했다. 올해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1월 22일 17:00,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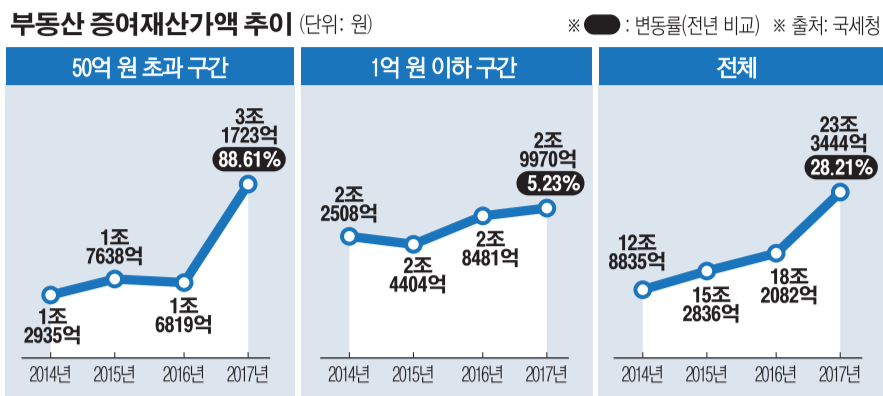
종류	종류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135,000	-700	0.5%▼
	리플	353	-9	0.6%▼
	라이트코인	34,340	-220	0.6%▼
	대시	77,300	800	1.0%▲
이더리움	모네로	49,420	870	1.8%▲
	비트코인골드	12,340	-70	0.6%▼
	이더리움 클래식	4,717	-46	1.0%▼
	퀀텀	2,265	2	0.1%▲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稅폭탄 맞느니”... ‘금수저’ 주택 증여 2배 늘어

2~4월 전국 아파트 입주 11만 가구, 전년비 7.7%↑

증여재산가액 50억 초과 구간 총액 3.2兆...전년비 88.6%↑
서울 주택 증여건 66.7% 늘 때 ‘노른자’ 강남 3구 121.2% 폭증
文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 영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수저’의 자산 증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재산가액 ‘50억 초과’ 구간의 총액은 3조17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1조6819억 원)보다 88.61% 증가한 액수다. 증여재산가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물건의 가격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액 증여는 크게 증가했지만 저액 증여는 미미한 변동폭을 보였다. 실제 2017년 ‘50억 초과’ 구간의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30억 초과-50억 이하’ 구간도 총

액이 1조766억 원으로 전년보다 54.29% 늘었다. 반면 ‘1억 이하’ 구간은 총액이 2997억 원으로 전년보다 5.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총액은 23조3444억 원으로 전년보다 28.21% 증가했다. ‘50억 초과’는 특히 이례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2016년에는 전년보다 4.65% 줄어든 1조6819억 원으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36.35% 상승한 수준이었다. ‘30억 초과-50억 이하’는 2015년 16.59%, 2016년 31.34%, 2017년 54.29%로 꾸준히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전체 자산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도 정부 규제를 피하고자 고액 위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1863건으로 전년보다 25.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이 2만4765건 증여가 이뤄져 전년보다 66.66% 늘었고, 그중에서도 ‘노른자위’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121.2% 급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주택 증여는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증여신고세액 공제를 조정 전 증여 수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양도세 증가 회피 △공시가 현실화 및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 요인 등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여 증가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 2018년에는 5%, 올해는 3%로 더욱 줄어든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에게 1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p 양도세가 부과되고,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나서면서 보유세 부담도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때문에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 셈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증여 거래 증가 추이는 부의 무상 이전과 대물림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세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상호작용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종합적 관점의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 동기(10.5만 가구) 대비 7.7% 증가한 11만2648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만7507가구(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 지방 5만5141가구(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월 화성동탄2(2559가구) 등 2만6901가구, 3월에 수원영통(2041가구) 등 1만9315가구, 4월에는 용인신갈(1597가구) 등 1만129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월에 전주덕진(2299가구) 등 1만8329가구, 3월 울산송정(1928가구) 등 2만552가구, 4월에 경남김해(4377가구) 등 1만626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만3824가구, 60-85㎡ 7만3049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4.9%를 차지해 중소형 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대림산업 안전체험학교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은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업계도 현장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림산업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74-191호(2018.11.14~2019.11.13)

KYOBO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업종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핫팩스,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엔 그대로 묶여

부산시 “고분양가 관리 제외돼야”...HUG “조정 검토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부산 연제구, 남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추가 조정을 검토 중이다. HUG는 작년 8월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새로 지정할 이후 추가 조정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이 변동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가운데 부산 남구, 연제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법령 근거가 아닌 HUG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분양가

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포함한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조정할 때마다 HUG는 내부적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즉,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68.9%로 13개월 만에 60%대로 떨어졌다. 대구·부산·경상권의 예상분양률은 68.2%로 집계됐다. 강원권(54.3%), 제주권(65.3%)과 함께 낮은 편에 속한다. HUG 관계자는 “작년 말에 변동된 조정대상지역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 변동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청 관계자는 “부산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LG vs 다이슨, 세번째 법정싸움

‘무선청소기 광고 갈등’ 본안소송 8개월 만에 3월 첫 재판

두차례 재판서 LG 완승

무선청소기 광고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LG전자와 영국 생활가전 기업 다이슨의 소송전이 본격화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3월 15일을 첫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새해 들어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3월에 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2월 법관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재판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이 제기된 후 현재까지 LG전자와 다이슨은 한 차례씩 답변서, 준비서면을 주고 받았을 뿐 경과된 시간에 비해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는 양측의 서면 제출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LG전자는 다이슨의 소장을 받고 두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LG전자는 거의 한 달이 돼야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장을 신청했다. LG전자의 답변서를 받은 다이슨 측 역시 첫 준비서면을 내는 데 두 달이 걸렸다. 3월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서 소송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이슨은 2017년 말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흡입력 등 제품 성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전자-다이슨 소송 일지

날짜	내용	결과
2015년 10월	LG전자,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 허위광고 금지소송 제기	다이슨 인정, LG 소송 취하
2016년 2월	LG전자, 서울중앙지법에 다이슨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다이슨 사과, LG 고소 취하
2017년 12월	다이슨, 서울중앙지법에 LG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8년 7월	다이슨, 서울중앙지법에 LG 광고금지 소송 제기	진행 중

당시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제트엔진보다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 99.97% 차단 성능의 해파 필터 적용’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4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다이슨

은 3개월 만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LG전자와 다이슨의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전자는 2015년 다이슨의 광고를 문제 삼아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듬해엔 다이슨이 무선청소기를 비교 시연한 것을 두고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두 번 모두 다이슨이 광고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골자로 사과하며 일단락됐다. **윤한솔 기자 charmy@**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여가부 '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소통·존중하는 가족 등 5대 과제 가족평등지수 개발·가족호칭 개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 계획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중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2018년 연 600시간, 중위소득 120%이하→2019년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이하)키로 했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산크레딧 명칭도 변경한다. 지원 대상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도 완화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만 14세 미만이었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sh@**



‘로도의 꿈’ 작년 한 해 4조 팔렸다 (잠정치)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복권방의 모습.

작년 한 해 로또복권이 4조 원 가까이 팔리며 ‘인생 역전’을 꿈꿨던 이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1년 로또복권 판매액은 3조9658억 원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대표통장 입금된 돈 인출땐 횡령”

대법, 무죄선고 원심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송금 실수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무

단사용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64)씨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여 씨는 2016년 8월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120만 원 중 119만5000원을 인출해 팩스 요금과 사무실 임대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여 씨는 자신의 통장을 양도해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또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사기 피해금도 잘못 송금·이체된 돈에 해당하는 만큼 무단으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장효진 기자 js62@**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2019. 01 VOL. 03

세계를 호령한 여왕의 마지막 인생 여정 **김현숙**

사물시 보물창고인 강연대 대표 **이재우**

남들와는 다르게 누구보다 노년기에 밝고 기쁨을 아는 고수가 있다 **Now in**

Guru

COVERSTORY 광내고 기름칠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PART1. 고수의 품격 - 임하지 않는 한, 누구나 인생 고수가 된다
 PART2. 대한민국 고수를 모일 - 구루(guru)가 되기 위해 응진 연설했던 조합
 PART3. 도전의 고수 - 최고령 보디빌더 서정강 씨, 인스타그램 스타 김석재 씨
 PART4. 생활의 고수 - 도시 속 미용 고수 정성미용실 신상순 씨
 PART5. 재능의 고수 - 외국에서 더 밝히는 섬유공예작가 이소라 씨
 PART6. 숨은 고수를 다 모여 - '숨고'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PART7.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 동년기자들의 답변

월레이징 머릿속 폭탄 뇌졸중, 의심되면 무조건 응급실 찾아야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중장년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 특히 겨울철엔 더욱 속을 썩인다.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데다, 후유증이 고생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면 불안감은 배가된다. 게다가 '말년타임' 즉 발병 후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뇌파라는 사실은 더욱 시니어를 옥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전문의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원 일산병원 신경과 서건익(徐健益)·4대 고수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말리지 매 난 일박에 몰라 가을 갈바람이 먼저가 골짜기는 산골이다. 마을의 품은 넉넉해 한침한 맛을 풍긴다. 산비탈 따라 층층이 들어선 주택들. 짐작마다 시원하게 탁 트인 초장을 자랑할 게다. 가구 수는 50여 호, 90%가 귀촌이나 귀농을 한 가구다. 하, 귀촌 귀농 바람은 비야흐로 거센 조류를 달아간다. 마을 이장은 김중용 씨. 그는 이 마을에 입장한 1호 귀농인이다. 그의 소개나 추천에 이따금 이곳으로 향할까 귀촌한 차인들도 많다고.

신라비가 만난 사랑

잘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견디는 힘이 된다 **최현숙 구슬생리사 작가**

요만(약) 실려낸 영마의 음식·재민치 해외까지 일리코피 한식 전도사 배우 **김수미**

미니팝이 역사를 만들고 절제가 찾아지게 한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랑받는 '복터 김'**

타박타박 도보여행 피란수도 부산의 추억을 더듬는 길 '초랑이바구길'

수도권 기온이 영하로 푹 떨어진 날, 부산역에 도착했다. 평소대로라면 부산역 옆 돼지국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 먹어보고 여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은 초랑이바구길에서 사탕국물을 먹기로 했다. 구수한 사탕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머니테크 한겨울 녹이는 뜨거운 예금 열풍... 이자가 워길래 '고금리 인전지대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연 고점 대비 20% 넘게 추락하는 등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시니어 밭상
올해마다 사할음식 당년에 좋은 한 끼로 새해는 더욱 건강하게

부치지 못한 편지
꽃 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이유리 시민

이더리움 개발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연기에 촉매, 왜?

“보안 결함 발견돼 해킹 사전 차단”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콘스탄티노(No)-플, 촉매를 듣시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17일 온라인상에 모여 다음 네트워크 업데이트로 예정된 '콘스탄티노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간단한 축하를 했는데요.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촉매를 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촉매 = 17일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일종의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날로 예상됐는데요. 하루를 앞두고 돌연 업데이트가 취소됐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 결함을 발견한 건 한 프로그램 코드 검사 업체인데요. 스마트컨트랙트(자동이행계약) 심사 전문업체 체인시큐리티는 '이더리움 개선 제안 1238(EIP1238)'이 도입된다면 해커에게 결함이 노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결함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잠정적 업그레이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부라부라 새 업데이트를 하지 말 것을 공지했는데요. 이미 많은 이더리움 채굴자가 업데이트를 위한 작업을 마친 상태라 자칫 콘스탄티노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업데이트가 이뤄져 결함을 이용한 해킹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계속 단행한 쪽과 중단한 쪽 두 채굴자 그룹이 나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를 블록체인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의미로 '체인 스플릿(Chain Split)'라고 하죠. 체인 스플릿가 발생하면 이더리움은 업데이트가 된 이더리움과 기존 이더리움으로 나뉘게 됩니다. 둘로 쪼개지면 보안성, 신뢰도가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을 축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계속되는 연기 왜 = 콘스탄티노플 업데이트



업데이트 진행중 결함으로 중단되면 채굴자 그룹 둘로 쪼개지는 사태 발생 보안·신뢰도 하락 치명상 입었을 수도 투자자 “계속 연기만 하는 코인” 비판에 창시자 “플랫폼 안정화 4~5년 걸려”

트가 연기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1월 됐어야 했지만, 결함이 발견돼 1월 17일로 연기된 것이었죠.

왜 이런 연기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비판적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개발자들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레드 참여자는 “출시날이 결정된 후 몇 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개발자들은 대체 뭘 했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더리움은 과거에도 최초 출시를 앞두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이 계속 연기만 하는 코인이라며, ‘담달 코인’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죠.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과정은 이렇습니다.

비영리재단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누구나 이더리움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이죠. 이러이러한 방향을 개선하자고 내놓은 제안을 이더리움개선제안(EIP:Ether

um Improvement Proposal)이라고 하고, 일련의 번호를 매겨놓습니다.

비교적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제안서(EIP)를 묶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데 콘스탄티노플에선 5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EIP1283’으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전체 개발 기간 늦춰지나 = 개발자들이 모여 윈인 파악과 다음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결국 EIP1283은 좀 더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고, 나머지 것들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날짜는 2월 말께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는 기록 단위로 블록(Block)을 쓰는데요. 728만 번째 블록이 생성되는 시점이고, 2월 27일(UTC 기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업데이트 연기로 이더리움의 전체 개발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요.

이더리움 개발은 여러 개의 팀별로 이뤄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아직 걸음마 수준인 걸 감안할 때 앞으로 갈 길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이 플랫폼으로 안정될 때까지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네요. hura@

시장 이모저모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지난해 전체 거래액이 2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슈퍼마켓에선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ATM)가 도입돼 시선을 끌었다.



비트코인, 작년 거래액 2500조 원

비트코인의 지난해 거래량이 2조2000억 달러(약 2488조 2000억 원)를 넘어서 불가리아 레프화보다 6배 많은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8580억 달러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들은 사토시 캐피탈 리서치의 트위터 계정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전체 코인 거래량은 3조2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고려한 라이크닝 네트워크의 노드가 지난해 말 기준 5200개까지 증가한 것을 배제한 수치다. 이를 고려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美 슈퍼마켓 비트코인 ATM 도입

미국 슈퍼마켓에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ATM)가 설치된다. 블록체인 벤처 코인미(Coinme)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워싱턴 주 지역의 일부 세이프웨이 및 알버슨 매장에 설치된 코인스타 동전교환기에서 코인미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구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닐 버퀴스트(Neil Bergquist) 코인미 최고경영자(CEO)는 “코인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간편하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동네 슈퍼마켓에 설치된 코인스타 동전교환기에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며, 새로운 가상화폐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더 넓게 열린 셈이다”고 강조했다.

유엔, 블록체인 기술 심도있게 연구

국제연합(UN)이 작성한 2018년 세계 경제 및 사회 연구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를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개척지’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의 장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핀테크 혁신 분야 대표 기술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또 대담하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엔 사무국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는 아이오타(IOTA)와 협력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소스 분산 원장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바이로봇
APT Shield 2.0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납입 부담 가볍게 혜택은 풍성하게 보험 '꿀팁'

보험사들의 기해년(己亥年) 상품 키워드는 '실속'이다. 소비자들의 알아진 지급 사정을 감안해 납입면제 제도, 장기납입 보너스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췄다.

교보생명의 '실속있는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30~40대 고객 기준으로 기존 상품보다 10~15%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현대해상의 '퍼펙트 종합보험'은 고객이 직접 만기 구조를 짤 수 있고,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덕에 재가입률이 90%에 달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보험사들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꼭 필요한 보장들만 쏙 담았다. 한화생명의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은 주계약으로 경도부터 중등도치매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종합건강보험'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주며, 한화손해보험의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은 집에 불이 나거나 무너졌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 배상책임, 주택임시 거주비까지 보장한다.

이 뿐만 아니다. 환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세심하게 챙긴다. 삼성생명의 '종합간병보험'은 치매환자들의 실종 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신호기를 준다. 간병에 지친 가족들은 '보호자 심리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치매 '보험금+간병연금' 지급

삼성생명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

삼성생명의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은 뇌졸중·관절염 등으로 장기요양상태 1~2등급을 받거나 중증 치매에 걸리면 진단보험금과 간병연금을 함께 지급한다.

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첫 진단 때는 보험금 1000만 원에 더해 간병연금(연 200만 원·월 100만 원, 10년 한도)도 나온다. 연금 형태는 1개월 및 1년 단위로 받게 되는데, 월 지급 보험금은 매월 발생하는 요양비에 쓸 수 있고, 연 지급 연금은 비싼 간병장비 등을 구입 또는 교체하는 데 활

용할 수 있다. 특히 경증이상간병 특약을 선택하면 경증 치매와 장기요양상태 3~4등급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간병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경증 이상의 치매로 진단받으면 치매환자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신호기가 제공되고, 간병에 지친 가족들을 위한 '보호자 심리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중증간병 상태가 되면 요양시설 관련 상담을 받고, 예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소할 때는 필요한 물품들로 꾸린 '키트'도 받게 된다.

이 보험은 일정 기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낮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개발됐다. 유해지 환급형 대비 월 보험료가 약 15% 저렴하다. 50세 남성이 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상품에 20년 납(95세 만기)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9만400원이다.

경도부터 중등도 치매까지 폭넓게 보장

한화생명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

한화생명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주계약으로 경도부터 중등도치매까지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이다. 치매와 관련된 질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심사없이 3개 항목에 대한 간단한 고지만으로 가입 가능해 가입문턱도 낮췄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최대 95세까지 보장한다.

경도치매 진단을 받으면 400만 원,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6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중등도 치매의 경우 진단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매월

간병자금으로 100만 원씩 종신토록 보장한다.

중등도치매 진단 확정 시 보험료 납입은 면제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간병자금은 36회(주계약 1000만 원 기준, 단 먼저 지급한 치매진단자금은 차감) 보장 지급된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형과 실속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실속형은 무해지상품으로 보험료 납입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 대비 약 20% 저렴하다.

40세 남자가 1종 실속형(1000만 원 보장)으로 20년 납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8만5600원이다.

아울러 이 보험은 특약을 통해 발병 빈도가 높은 질



병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약 8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질환 등 3대 질병에 대해 진단, 입원, 수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종신보험보다 최대 15% 저렴

교보생명 실속있는 종신보험

교보생명의 '실속있는 종신보험'은 해지 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 보험료 납입기간(저해지기간)에는 해지 환급금이 일반상품에 비해 50%(1형), 30%(2형)만 적립된다. 납입기간이 지나면 해지 환급금이 100%로 늘어 일반 상품과 동일해진다. 30~40대 고객 기준으로 기존 종신보험보다 10~15%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40세 남자가 주계약 1억 원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20년 납 기준으로 1형(50%) 24만5000원, 2형(30%) 23만300원이다.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납입기간이 5년을 넘으면 이후 매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3%까지 '장기납입보너스'가 적립된다.

보험을 잘 유지한 고객에게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기본적립금의 최대 7%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준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은 은퇴 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서 최소장래비 수준(10%)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최대 20년 동안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받는다. 중도에 생활자금 전환 취소나 변경도 할 수 있



다.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 이상부터 최고 3%까지 보험료도 할인해준다.

www.douz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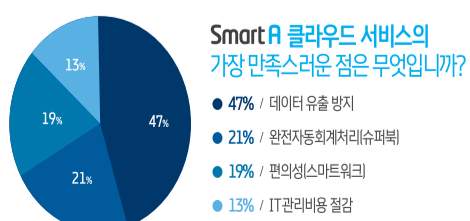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 Anytime 언제나
- Anywhere 어디서나
- Any Device 어떤 기기든
-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중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권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DOUZONE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휴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합리적 보험료·친절 상담... 5년째 가입 1위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시장 점유율 30%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1위다.

삼성화재는 2009년 업계 최초로 인터넷 완결형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10년 만에 연 매출은 573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가입자 수는 8만4000명에서 238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재가입률이 88%에 달해 고객 만족도가 높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시장에 가장 늦게 진출한 후발 주자다.

하지만 보험료 경쟁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두각을 나타냈고, 지난 5년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 밖에 합리적인 보험료와 오프라인 가입과 동일한 보상 서비스와 가입 권유 없는 친절한 전화 상담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도 이뤄졌다. 지난해 7월부터 전화 가입 선호 고객을 위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전화 상담·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보험 가입에 필요한 메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백병관 삼성화재 인터넷자동차영업부장은 "지난



10년간 고객들의 사랑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항상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0세부터 80세까지 일상생활 위험 보장

한화손해보험은 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과 이로 인한 손해비용을 보장하는 '무배당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을 내놨다.

해당 상품은 상해흉터복원수술비를 기본 담보로 구성했으며 화재나 붕괴, 침강 사태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임시거주비에 대해 면책기간 없이 90일 한도로 1일 최대 10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도 500만 원까지 보상한도를 늘렸다. 업계 최초로 임대인이 임대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가액 대비 실손비례 보상해준다.

아울러 가입고객의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장도 1cm당 안면부 20만 원, 상하지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사고 한 건당 지급한도액도 업계 최고인 1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치아과절을 포함한 골절진단비와 응급실내원 치료비(상해), 중상해로 인한 대인형사합의 실손비 등 일상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대폭 확대했다.

보험가입 범위도 기존 15~70세에서 0~80세로 확대해 전 가구에서 보장설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단기납 신설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납입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높였다.

한화손해보험 안광진 상품업무팀장은 "하나의 증권으로 화재와 비용, 손해, 상해, 배상책임, 운전자까지 생활 속 다양한 위험과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생활보장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만기·납입면제·환급 혜택 선택 가능

현대해상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현대해상은 다양한 만기 구조와 납입면제 조건 선택이 가능한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세만기형(비갱신형) 또는 갱신형 중 고객이 원하는 만기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고객의 가입 조건에 따라 납입면제, 기납입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면제 제도를 선택한 경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등 8가지 사유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갱신형

계약으로 가입한 고객은 갱신시점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세만기형의 경우 '보험료환급' 특약 가입 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등 6대 질병 진단 시 기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22대 특정 질병수술, 다발성 13대 질병수술, 35대 생활질환수술, 치핵수술 담보 등 다양한 수술 보장이 가능하다. 대상포진과 통풍 등 생활형 보장도 강화됐다. 이 밖에 전립선암과 고환암 등 남성 생식기와 관련된 암과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암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성별 특화 암보장을 제공



한다. 현대해상 박재관 장기상품부장은 "다양한 상품구조와 보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종합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로결석 진단·응급실 내원비' 배타적 사용권

KB손보 **KB The드림365건강보험II**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가 포함된 'KB The드림 365건강보험II'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손해보험 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먼저, 요로결석진단비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과 치료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그동안 요로결석은 중대한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보장 수요가 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신담보 개발은 보장 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발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 1등급과 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종전의 담보들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반면, 해당 상품 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 영역을 추가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 밖에 해당 상품은 기존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비로만 보장받던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발병 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업계 최초 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사암진단비와 더불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 보장 신설로 기존 판매 중인 간병보장과 연계하여 민영보험의 공적 기능도 강화했다.

Premium Toothpaste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9無 루바스천연치약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LUBAS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無 불소

無 광물성 오일

無 동물성 원료

無 주스 반응

無 사카린 나트륨

無 SLS

無 등물성 원료

無 안식향산 나트륨

無 침강탄산 칼슘

無 파라벤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 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 잇몸 케어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작은 점포라고 수익도? 점주 수익 극대화 목표”

‘RE BOOT 주씨’ 이끄는 성중현 주씨 마케팅부장

“주스전문점 틀 깨자” 디저트 메뉴 늘려 홈카페족 발길 잡아 소비자가 제품 고르는 매장으로 ... 농장 체험 투어도 계획

주씨가 달라졌다. 저가 주스전문점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내고 디저트 메뉴를 강화하면서 홈카페족의 발길까지 잡는데 성공했다.

대만 샌드위치 ‘에이미’, 과일칩 ‘주앤칩스’, 과일 도시락 ‘주씨락’까지 다양한 메뉴를 통해 주씨는 과일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매장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 지난해에는 ‘따자마자 생으로 바로 먹는 제철 주씨’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내걸었다. 슬로건에 맞는 제품도 잇달아 내내 성공 신화를 썼다. 제철메뉴인 수박주스는 연간 500만 잔이 판매되는 히트상품으로 떠올랐고 현재까지 누적 주스 판매량은 3억 잔을 넘어섰다. 연간 판매되는 주스도 대한민국 인구가 맞먹는 수준이다.

성중현(40·사진) 주씨 마케팅 부장은 주씨의 변화를 주도한 주인공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만 15년차 베테랑인 성 부장은

2017년 말 주씨에 합류했다. 주씨에서의 1년여 동안 그는 쉽지 않은 변화를 꾀했다. 새 슬로건을 만들고 새 메뉴를 기획하면서 주씨는 지난 한 해 동안 브랜드 론칭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는 이 같은 변화를 “RE BOOT 주씨”라고 명명한다.

“주씨는 작은 점포입니다. 점포가 작기 때문에 메뉴도 적고 수익도 낮아야 할까요?”

성 부장이 처음 주씨에 입사할 당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는 주씨를 즐기는 공간이 매장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또 주스전문점이라는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스전문점이라는 틀에 갇히면 점주들의 수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 반해바(바 형태의 빵)와 치즈케이크 등 주스와 어울리는 다양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 곳, 과일에 대한 모든



것으로 브랜드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죠.”

올해 ‘주씨’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성 부장은 내다봤다. 그는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 편의점처럼 소비

자가 편하게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가맹점 매출 극대화를 위한 단체주문 시스템도 구축하고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해 농장 체험 투어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씨로 옮기기 전 그는 다양한 도전을 즐겨왔다. 티브로드 마케팅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2010년 생소한 외식업계인 이디야커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이디야커피 매장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이디야커피는 커피전문점 1위 브랜드로 성장했다. 성 부장은 이디야커피의 메인 슬로건 ‘Always besides You’를 직접 기획했고 이디야의 SNS 채널을 개설하며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했다. 이디야의 스틱커피 브랜드 ‘비니스트’와 블렌딩 원두 개발에도 참여했다. 이디야 뮤직페스타도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성 부장은 이디야에서의 성공을 주씨에서 보다 빠르게 재현한다는 계획이다.

“주스만 파는 주씨가 아니라 주스도 파는 주씨로 기억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메뉴의 다양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점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변리사·법무사 영역 침범 맞서 변호사 법률서비스 직역 수호”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직역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이찬희 당선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선거사무소(법무법인 송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들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도움 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당선인은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직군에서 소송 분야를 침범하려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선인은 “그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업무이지 소송 전문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당선인은 18일 진행된 조기투표와 21일 시행된 본 투표에서 전체 선거권자 2만1227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윤한슬 기자 charmy@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에 배정희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배정희 전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이 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선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장, 중앙대 초빙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다년간 정부 R&D,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했고 특히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18년간 5508대...현대차 판매왕 비결은? “고객 신뢰”

‘10년 연속 1위’ 임희성 부장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되새길 수 있는 한 해였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영업 부문에서 판매 신기록이 나왔다. 공주지점 임희성 영업부장이 10년 연속 판매 1위에 오른 것. 2001년에 입사한 그는 지난해 416대를 판매했고 누적판매 5508대를 기록했다. 그는 판매왕의 비결로 ‘고객 신뢰’를 꼽았다.

22일 현대차가 2018년 전국 판매 우수자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판매왕은 공주지점 임희성(44·사진) 영업부



장이 차지했다. 10년 연속 최다 판매 직원이기도 하다. 2001년 7월 입사한 임희성 부장은 지난해 416대를 포함, 누적 판매 5508대를 기록했다. 작년에만 하루에 1.1대씩 판매한 셈이다.

임 영업부장은 “작년을 돌아보면, 고객 한 분 한 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었지만 특히 귀국 일정에 맞춰 차량이 필요하셨던 해외 체류 중인 고객께서 저를 믿고 차량 구매를 일임하셔서 최선을 다해 차량을 준비해 인천공황에서 직접 차를 인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 개최 동아제약, 민화협과 협약 체결

동아제약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민화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호진(사진 왼쪽) 동아제약 사장과 김홍걸(오른쪽)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참석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서 청년 부문 남북 대학생 교류 증진을 위해 국토대장정을 논의했으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번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북한을 방문해 북측 민화협과 국토대장정의 일정, 인원, 코스, 이동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KT, ‘가가지니’ 앞세워 베트남에 ‘AI 한류’ 전파

호찌민서 ‘해커톤 외교’ 열어

KT가 자사 AI플랫폼 ‘가가지니’를 활용해 베트남에 AI 한류를 전파한다.

KT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진행된 ‘한국-베트남 AI 해커톤 외교’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2일 밝혔다. (주)메카솔루션이 주최하고 KT와 사이공 혁신 허브가 후원한 이 행사는 베트남 학생과 개발자 40명이 참여했다. (사진)

해커(Hacker)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인 ‘해커톤’은 주로 IT 기업에서

기획, 개발,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해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해커톤은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29시간 연속 진행됐다. 이번 ‘한국-베트남 AI 해커톤 외교’에서 ‘IFTTT(If This Then That)’를 활용해 베트남어로 된 이메일 및 개인 콘텐츠를 한국어로 읽어주는 솔루션 개발’로 팜 뜨영 두이(27, FPT텔레콤)가 1등상을 차지했다. 그는 베트남 IT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세계적인 IT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 꿈이다.



김재희 KT AI사업단장 상무는 “KT AI 기술이 해외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AI 메이커스 키트를 통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 우수 인재들의 창의력 실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인사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김형수
- ◆한국예탁결제원 <전보> △국제펀드본부장 정승화 △전략기획본부장 최경렬
- ◆한국고용정보원 <전보> △연구사업본부 고용정보분석센터 신종각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책부장 김강희 △기획부장 송장현 △연구데이터공유센터장 이상환 △슈퍼컴퓨팅 인프라센터장 홍태영 △슈퍼컴퓨팅응용센터장 염민선 △슈퍼컴퓨팅기술개발센터장 박찬열 △R&D투자분석센터장 원동규 △지역융합혁신단장 이호신 △지능형인프라 기술연구단장 성원경 △KESLI사무국장 김환민 △국가슈퍼컴퓨팅사무국장 이석

- △연구전략실장 이용호 △기획실장 문태경 △인재개발실장 주용하
- ◆신한금융투자 <임원 선임> ◇본부장 △호남충청영남본부 이영농 △경영지원본부 박성진 △강북영남본부 이선미 △국제영업본부 임태훈 <임원 전보> ◇본부장 △강남영남본부 이선훈
- ◆상상스토리 <승진> △부사장 송호현 <신규 선임 및 보직발령> △개발 1팀장 이사 이정주 △개발 2팀장 부장 정광식 △개발 3팀장 부장 임동원 △개발 4팀장 차장 조민정 △경영지원팀장 차장 신영 △전략기획팀장 과장 윤혜진 △디자인팀장 과장 이희연
- ◆데일리안 △콘텐츠기획팀장 홍광표 △소셜미디어팀장 김현정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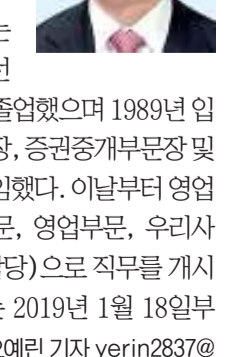
- ▲엄철희 씨 별세, 김진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씨 모친상 = 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 ▲이항이 씨 별세, 기외호(전 코리아 헤럴드 대표이사)·숙란(경산시 의회 부의장)·동호(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장) 씨 모친상 = 22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2-3010-2412
- ▲박진화 씨 별세, 박성윤(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팀장)·성호(프랑스 거주) 씨 부친상, 이호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안남연 씨 시부상 = 21일,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4일 오전 8시, 02-3010-2231
- ▲이병례 씨 별세, 김용길 씨 모친상, 신용구(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씨 빙모상 = 21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 연세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0시, 010-4539-0010
- ▲채의석(전 익산시장) 씨 별세, 채정룡(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씨 부친상 = 22일, 군산시 중앙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24일, 063-442-4444
- ▲이규철(민족사관고등학교 초대교장) 씨 별세, 이창섭(IBK투자증권 본점영업본부장)·호섭·정혜·현숙 씨 부친상 = 21일, 부산보훈병원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051-601-6785

한국증권금융, 오정구 상무 선임

한국증권금융은 17일 이사회를 열어 오정구 신탁본부장을 상무로 새롭게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오정구 상무는 1967년생으로, 조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 입사한 이래 수탁부부장, 증권중개부부장 및 신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부터 영업본부장(영업기획부, 영업부, 우리사주부문 및 각 지점 담당)으로 직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임기는 2019년 1월 18일부터 2년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핵 동결과 ICBM의 폐기 선에서 북한 문제를 봉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일 이런 식의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계속 보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영철이 미국을 방문했다. 2월 말에 개최한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지난번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만남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공개했었다. 이번에는 김영철 방문 이후 이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진과 트윗이 공개됐다. 트럼프는 트윗에서 "이번 주에 (북한) 최고 대표자들과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며 "2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펜스 미 부통령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2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이 약속한 진정된 비핵화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하겠다는 언급은 이중적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우선 아직까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의 조치를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대를 전달할 것"이라는 언급은, 스웨덴에서 열렸던 실무 접촉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직까지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스웨덴에서는 남·북·미 3자가 2박 3일 일정으로 실무회담을 했다. 이번 실무 접촉에서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있다. 만일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거나,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제거" 쪽으로 합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폼페이오는

'비핵화' 대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제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주일미군이 만든 동영상에는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 반열에 올려놓는 일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다.

여기에 미 국방부도 가세했다. 김영철이 미국에 도착한 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은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 국방부의 보고서가 발표된 날 "우리는 미국을 향해 어디서든, 어느 때든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을 반드시 탐지해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선에서 북한 문제를 봉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일 이런 식의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ICBM에 국한될 것이 분명하는데, 그렇다면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계속 보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와 일본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 표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비핵화가 막연한 시점으로 미뤄진 상황에서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집권 3년차와 맞물려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겠다.

정책발언대



양창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겨울철 농촌 들녘에서는 하얗고 둥근 멍치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높이 1.2~1.5m, 무게 400~500kg인 이것의 정체는 소가 즐겨 먹는 발효사료, '담근먹이'이다. 멀리서 보면 말랑하고 푹신푹신해 보인다. 별명도 '마시멜로', '공룡 알', '두루마리 휴지' 등 다양하다. 포장 과정도 신기한 담근먹이를 만드는 영상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필자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발효사료가 거의 없었다. 풀이 지천인 여름에는 산으로 들로 소를 직접 끌고 가 풀을 뜯게 했다. 겨울에는 가마솥에 볶짚과 고구마 줄기, 콩잎, 쌀겨 등을 넣고 쇠죽을 섞어 주었다. 그러나 싱싱한 볶짚이 아닌 마른 볶짚은 말리는 동안 변질되기도 하고 영양 가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소도 잘 먹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 년 전

쯤 등장한 것이 담근먹이이다. 담근먹이의 시작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였다. 비가 자주 내리는 영국에서는 건초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풀이 썩지 않도록 비닐로 돌돌 말아놓았는데, 이것이 발효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사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기술은 1990년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촌진흥청의 연구로 지금의 두루마리형 담근먹이 만드는 기술이 널리 보급되었다.

볶짚과 사료작물을 포장해 만드는 담근먹이는 사람이 먹는 김치와 비슷한 점이 많다. 김치처럼 숙성 과정에서 젖산이 발효되며 소가 좋아하는 향긋하고 맛있는 먹이로 탈바꿈한다. 실제 소는 마른 볶짚보다 볶짚 김치를 더 좋아한다.

마른 볶짚의 경우 소 한 마리가 하루에 5kg 정도를 먹지만, 숙성한 발효 볶짚 김치, 담근먹이는 7.5kg을 먹는다. 볶짚 담근먹이는 눈이나 비 같은 기상 여건에 영

향을 받지 않아 사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확 철에도 율기지 않고 논둑에 쌓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겨울 사료 작물을 심는 데도 유리하다.

볶짚뿐 아니라,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같은 봄에 수확하는 풀사료도 담근먹이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소가 잘 먹고 영양가가 풍부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는 농촌진흥청이 우리 기후에 맞는 13개 품종을 개발·보급하며 담근먹이의 대표 주자가 됐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2018년 종자 공급량은 6103톤으로, 20톤 컨테이너 305개나 된다. 가공 방법으로 나눠 보면 담근먹이뿐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하여 저장성을 높인 건초, 담근먹이와 건초의 중간인 저수분 담근먹이 생산도 활발하다.

과거에는 수확기에 비가 잦아 건초나 저수분 담근먹이 생산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기상 여건이 바뀌고 맞춤형 첨가제를 개발하며 충분히 생산 가능한 여건

이 됐다.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 대비 평야는 적고, 초지 면적 또한 넓지 않아 충분한 풀사료를 생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매년 100만 톤 내외의 풀사료를 수입하고 있다. 이것이 사료비 상승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운 우리 축산업을 위해 사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우유와 고기 등은 가축에서 나오고, 좋은 가축을 만드는 것은 좋은 풀사료다. 젖을 땀 뒤부터 좋은 풀사료를 먹인 한우는 골격과 소화기관이 발달하며 더 튼튼한 소로 자랄 수 있다. 풀사료를 충분히 먹은 젖소가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초, 저수분 담근먹이와 같은 다양한 가공법 보급과 우리 기후에 맞는 풀사료 품종 개발은 우리 축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담근먹이, 우리 풀사료의 가치

이투데이, 말투데이

☆ 스타달 명인 "첫사랑의 징후는 남자에게는 수줍음으로, 여자에게는 대담함으로 나타난다."

대표작 '적과 흑'을 남긴 프랑소 소설가. 발자크와 함께 19세기 프랑스 소설 2대 거장으로 평가받는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명언 외에 생전에 써 둔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라는 묘비명도 남긴 그는 짝사랑으로 고민해 '연애론'까지 썼다. 오늘이 그의 생일. 1783~1842.

☆ 고사성어 / 회자인구(膾炙人口)

'인구에 회자한다'라는 말로, 맛있는 음식처럼 시문(詩文) 등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비유한다. 원전은 맹자(孟子). 증자(曾子)는 아버지가 생각나 차마 부친이 생전에 좋아하던 양조(羊糲)를 먹지 못했다. 맹자가 "날고기와 구운 고기는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는 것이고, 양조는 증자 아버지가 홀로 좋아한 음식이기 때문이다(膾炙所同, 羊糲所獨也)". 이름 부르는 것은 꺼리고 성 부르는 것은 꺼리지 않는 것은 성은 다 함께 쓰는 것이지만, 이름은 그 사람 혼자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프레임 법칙

이미 틀 지워진 생각의 틀인 프레임(frame)에 따라 시각과 관점이 정해지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이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각 및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는 사뭇 달라지며 호불호가 크게 엇갈린다.

☆ 유머 / 소개팅 계획

노총각, 노처녀가 소개팅으로 만나 저녁을 먹었다. 남자가 "식사 끝나고 어디 갈까요?" 하고 물었다.

여자가 계획도 없이 나왔냐며 발끈했다. 남자의 대답.

"내 계획엔 너 같은 얼굴은 없었거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한 자리에서만 120여 년간 영업했지요.", "내 나이 66세, 45년 동안 이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일본 도쿄 긴자 상권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양품점, 디저트 가게 등 여러 점포를 돌아다녔다. 100년 된 노포(老舖)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점주들에게 장수 비결을 묻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편한 환경"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149년 된 나나타야 양품점의 오오모토 코타로 창업이사는 "오랜 단골들은 대부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그래도 무리한 임대료 상승이 없기에 큰 폭의 매출 타격은 없다"며 웃어 보였다.

동시대 우리나라는 사정이 한참 다르다. 서울시는 을지로 일대 재정비 사업을

기자수첩



이 꽃 들 유통바이오부/flowerslee@

뿌리 깊은 나무 '을지로'를 도려내는 서울시

밀어붙여왔다. 그러자 정계전을지로보존연대가 "제조산업문화특구로 전환해 리모델링하고 경제·문화적 가치를 부흥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을지면옥'을 필두로 한 노포와 공구상 거리가 철거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소식에 여론이 악화하자 박원순 시장은 "전통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속단할 수 없다.

을지로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공업 클러스터로 수십년간 생존해 왔다. 재료 수급부터 가공 후 처리까지 하나의 생태계로서 유기적으로 협업해왔다. 이들 장인은

수십억 원짜리 자동화 기계로 할 작업을 사람 손으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든든하게 산업을 떠받쳐왔다. 팔다리를 잘라내면 기능할 수 없는 게 바로 '메이커시티'다. 실패작 '가든파이프'에서 이미 경험했듯 말이다.

기술강국 일본의 산업은 이른바 동네 공장(町工場, 마치코바)에서 태동했다. 논문 '일본 장인 문화의 특성과 지속가능성'에서는 "본래 개인의 생업이라는 지극히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장인 기술이 이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하는, 보다 보편적 공적 가치로 전환됐다"고 오늘날의 장인들을 평가한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부르짖어야만 하는 한국의 '마치코바'들은 을지율이 유난히 더 좋다.

“올 설엔 방북할 수 있을까요”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 제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도 2월 말로 잡혔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2월 말에 열리며, 장소는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협상도 마무리됐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섉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이 끝난 가운데, 스웨덴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이례적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도 참석했으며 북미가 대립하는 주요 이슈마다 중재력을 발휘하는 등 중재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속은 여전히 새까맣다.

“올 설엔 방북할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3년이 다가오

데스크칼럼

최영희 증기부장



고 있다. 2016년 2월 11일 설 연휴 기간이었다. 우리 정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9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또 다시 설을 앞두고 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알콩달콩 사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설날이 다가오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9일 공단 내 시설 점검 등을 이유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이후 7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번째 방북 신청이었다. 기업인들은 당시 통일부에 “16일 방북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시설 점검을 위해 123개 입주기업 당 대표자를 제외하고 실무자 2명 정도까지 방북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산은 아니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

야 하나 노심초사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은 더 크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마스다 무네아키는 그의 저서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뭔가를 계산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진짜 결단이란 답이 없고 계산도 없다”고.

결국 중요한 것은 결단이다.

남북 관계 역시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연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우선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역시 과감하게, 적어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재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자신들의 자산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려겠다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작은 바람을 못 들어 줄 이유가 무엇인가.

2주 후면 설날이다. 공단 폐쇄 후 3년 동안 어떤 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만 했고, 어떤 이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또 어떤 이는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도 겪었다.

이번 설엔 3년 전 부라부라 엉성한 짐바구니를 신고 급하게 내려오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당당하게 방북하는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che@

시설

성장률 2%대 추락, ‘투자주도’라야 경제 산다

한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2.7%로 2017년 3.1%에서 큰 폭 추락했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의 결과다.

수출과 재정 투입이 떠받친 성장률이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2.8% 신장에 그쳤고, 정부소비가 5.6% 늘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금을 대규모로 쏟아붓지 않았다면 훨씬 낮은 성장률을 피하기 어려웠다. 수출은 반도체가 버텨 4.0%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1.7% 감소해 9년 만에 최저였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건설투자가 4.0% 줄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작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도 없었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갔다. 성장 전략과 경기 대책 부재 등 내부 요인에서 비롯된 저성장이다.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데 투자는 갈수록 위축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키워지지 않고 있다. 경쟁국은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등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역주행 정책만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최악의 ‘고용 쇼크’를 불렀다. 고질적 고비용·저생산 구조개선을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도 등 노동편향 정책은 기업 부담만 늘렸다. 첩첩이 쌓인 규제 또한 기업 투자를 얼

어붙게 하는 최대 걸림돌이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욱 암담하다는 점이다. 사방에 악재만 가득하다. 미중 무역분쟁과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세계 경제는 급격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제시한 3.7%에서 0.2%포인트나 낮췄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이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8% 성장에 그쳤다. 중국 경제 경착륙이 한국 수출과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새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작년에 비해 14.6%나 줄어든 257억 달러로, 특히 수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가 28.8%나 감소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는 2.6~2.7%다. 하지만 수출이 꺾이고, 고용 악화가 소비를 더 얼어붙게 만들면서 올해 2%대 초반 성장도 버겁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비상한 위기인식이 요구된다.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 투자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의 한계도 분명하다. 민간 기업 투자를 살리지 않고는 경제의 추락을 막기 어렵다.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유현희의 뉴스 카트



유통바이오부 차장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많다. 직장에서는 선배이자 후배로, 부모에게는 자식으로, 결혼한 후에는 아내와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 혹은 직장에서 역할이 가장 힘들 것이고, 어느 경우엔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버거울 것이다.

내겐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는 어느새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한 엄마를 이해한다. 훌쩍 커 버린 아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나뿐일까.

출근하는 순간 엄마라는 역할을 잊으려 애쓰며 살아온 지 10년. 그러나 유통업계를 출입하며 가끔은 엄마라서 분노하게 된다.

최근 발생한 남양유업의 곰팡이 주스 사건도 그중 하나다. 식품 회사의 이물질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밀가루에서 쥐 머리가 나오기도 했고, 과자와 분유에서 벌레가 발견되거나 쇠불이 들어간 참치도 있었다. 케이크의 과일 토핑에서 곰팡이가 발견됐을 때는 실연에 방치한 소비자 과실로 치부한 적도 있다.

엄마라서 분노한다

여러 이물질 사건을 접했지만 남양유업의 곰팡이 주스 사건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불편한 대응 방식을 엄마로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양유업은 유아용 주스 ‘아이꼬야’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 후 나흘이 지난 후에야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판매 중단이 결정되기까지 육아카페와 SNS는 성난 엄마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사과문을 게재한 후에도 남양유업을 향한 엄마들의 비난은 이어졌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사과문의 문구가 원인이었다.

남양유업은 사과문을 통해 “아이꼬야 우리아이주스 레드비트와 사과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클레임으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며 “제조 과정이 아닌 배송 중 발생한 핀홀 현상(Pin Hole)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곰팡이가 문제라 아니라 곰팡이 클레임에 더 무게를 둔 듯한 부분은 실수로 치부한다 해도 배송 회사나 유통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해명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인상마저 준다.

소비자, 특히 ‘엄마 소비자’는 대한민국

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기업들은 엄마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엄마들의 마음을 잡지 못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도 여럿이다.

제작된 유한김벌리는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를 넘는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리자 발 빠르게 사과문을 게재하고 판매한 제품의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유한김벌리는 여전히 한국 기저귀 시장 1위 기업이다. 메탄올 사건에도 불구하고 물티슈 불매운동도 거의 없었다.

반면 남양유업에 대한 불신과 불매운동은 확산될 조짐이다. 정보를 공유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10여 년 전쯤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소비자는 생산자를 바꿀 만큼 막강한 힘을 지녔다. 그러나 남양유업의 행태는 여전히 소비자를 과거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있는 듯하다. 프로 소비자를 대하는 아마추어 기업의 낡은 대응에 오늘날도 난 엄마라서 분노한다.

yhh1209@



명태(明太)

함경북도 남동부 동해 연안에 자리한 명천군(明川郡)에 태씨(太氏) 성을 가진 어부가 어느 날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고을 원님에게 바쳤는데 원님이 맛있게 먹고서 물고기의 이름을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명천에 사는 태씨 어부가 잡았으니 명태라고 하자’고 함으로써 명태라는 이름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쓴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보이는 기록이다. 이렇게 시작된 ‘명태’라는 이름의 생선은 후대로 갈수록 지역에 따라 먹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었다. 말리지도 않고 얼리지도 않은 막 잡아 올린 명태는 생태(生太)라고 하고, 생태의 내장을 빼고 햇볕에 말린 것을 북어(北魚:북쪽지방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라는 뜻)라고 하며, 겨울에 잡아서 얼린 것을 동태(凍太)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얼리고 말리기를 반복하여 살색은 노르스름해지고 살결은 약간 스펀지처럼 포

근해져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을 황태(黃太)라고 하는데, 얼리기와 말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상품성이 없게 된 것을 파태(破太)라 하고, 부패하여 아예 검게 변해 버린 것은 흑태(黑太) 혹은 먹태(墨太)라고 하며, 건조 도중에 머리가 떨어져 나간 것은 무두태(無頭太)라고 한다. 이 외에도 새끼명태는 애태, 다 자란 명태임에도 유난히 크기가 작은 명태를 왜태(倭太), 얼지 않고 말라 버리는 바람에 딱딱해진 황태를 강태, 내장을 빼지 않고 통째로 만든 황태를 봉태(封太), 산란 후에 잡은 탓에 알이 없는 명태를 꺾태, 산란 전에 알이 꽉 찬 상태로 잡은 명태를 난태(卵太)라고 하는 등 명태에 대한 이름은 50종이 넘는다고 한다.

바리톤 성악가로 유명한 오현명 선생이 부른 가곡 ‘명태’가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했었다. 명태는 그만큼 우리와 친숙했었는데 이제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열정가득 청년의 꿈,

KB와 손잡고 날아오르다

끝없이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도록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꿈, KB와 함께 이룬다] Dreaming Job KB Dream's Coming Project

대한민국의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KB가 우리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여 5년간 1만7천여명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직·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8만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일으켜 예비 취업자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